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주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친족관계 밀접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 결혼 10년 이하의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윤 희 진

친족관계 밀접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 결혼 10년 이하의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

김 주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윤 희 진

認 准 書

윤희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고 친족관계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결혼 초기와 일상적 도움이 많이 요구되는 자녀양육기를 포함하는 결혼 지속 년 수 10년 이하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 후 개인의 삶의 만족과 관련이 깊은 결혼만족도와 친족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독립 변인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직업, 본인 월평균수입, 월평균가계수입, 출생 순위, 건강 상태, 결혼 지속 년 수, 자녀 유무, 양가 부모와의 근접성, 양가 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포함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의사소통, 성역할태도, 성만족도,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부부 특성, 그리고 정서적 관계, 일상적 관계, 경제적 관계, 친교적 관계를 포함한 친족관계까지 확대하였다. 이들 독립 변인들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 및 결혼만족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는 성별, 출생 순위, 양가 부모와의 근접성, 양가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일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출생 순위는 남성에게만 유의하였고, 전체 조사대상자에게서 양가 부모의 근접성은 배우자 부모에 비해 친부모와의 근접성이 보다 유의하였다. 또한, 친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는 남성의 친부모에게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배우자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직업, 건강 상태, 결혼 지속 년 수, 자녀 유무, 친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일부 유의한 차이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결혼만족도는 본인 연령과 배우자의 연령 모두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본인 연령만 유의하였다. 또한, 전체 조사대상자에게서 본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직업과 친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여성과 달리 남성의 결혼만족도

에만 유의하였으며, 건강 상태와 결혼 지속 년 수, 자녀유무는 여성의 결혼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부부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 성만족도, 전반적인 부부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역할태도는 여성에게서만 유의하였고, 의사결정권은 남녀 모두에게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상관없이 부부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남성의 경우 친교적 관계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정서적 관계, 일상적 관계, 전반적인 친족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 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남성의 경우 친교적 관계가 상당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정서적 관계만이 다소 유의하였다. 그러나 친부모와 배우자부모와의 경제적 관계 밀접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남녀 모두에게 유의하지 않았다.

다섯째, 독립 변인들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독립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은 남성의 경우 직업, 부부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모형에서 친부모와의 친교적 관계 밀접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본인의 건강 상태와 부부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모형에서는 배우자부모와의 친교적 관계 밀접도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족관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였으며, 의사소통과 성만족도와 같은 부부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오늘날 20-30대 젊은 기혼남녀의 친족관계 밀접도는 대체로 친부모와의 관계가 밀접하게 나타났지만, 여성에 비해 남성의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보다 활발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점차 부부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성만큼 남성은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특히 이러한 현상이 지체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모와의 밀접도가 오늘날 20-30대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매우 미미한 반면, 부부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부 관계가 점차 부부 중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친족관계 밀접도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 만큼 가족중심성이 강한 한국사회 내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결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친·인척 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목 차 >

논문개요

| | |
|-----------------------|----|
| I. 서 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II. 이론적 배경 | 4 |
| 1. 친족관계와 부부관계 | 4 |
| 2. 친족관계와 결혼만족도 | 5 |
| 3. 친족관계 개념 및 유형 | 6 |
| 4. 친족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 9 |
|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친족관계 | 9 |
| 5. 결혼만족도 | 14 |
| 1) 결혼만족도의 정의 | 14 |
| 2) 결혼만족도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 14 |
|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결혼만족도 | 15 |
| (2) 부부 특성과 결혼만족도 | 19 |
| 6. 주요 용어의 조작적 정의 | 23 |
| III.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 25 |
| 1. 연구 문제 | 25 |
| 2. 연구 모형 | 26 |
| 3. 연구 방법 | 27 |
|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 27 |

| | |
|----------------------------------|----|
| 2) 측정 도구 | 28 |
| 3) 척도의 구성 | 28 |
| 4. 자료 분석 방법 | 30 |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31 |
|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31 |
| 2. 친족관계 | 35 |
|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친족관계 밀접도 | 35 |
| 3. 결혼만족도 | 46 |
|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결혼만족도 | 46 |
| 2) 부부 특성과 결혼만족도 | 56 |
| 3) 친족관계 밀접도와 결혼만족도 | 57 |
| 4.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 61 |
| V. 결론 및 제언 | 64 |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설문지)

< 그림 목차 >

| | |
|-------------------|----|
| <그림 1> 연구모형 | 26 |
|-------------------|----|

< 표 목 차 >

| | |
|--|----|
|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33 |
| 표 2 성별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 | 36 |
| 표 3 연령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 | 36 |
| 표 4 교육 수준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 | 37 |
| 표 5 직업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 | 38 |
| 표 6 본인 월평균소득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 | 39 |
| 표 7 월평균가계수입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 | 40 |
| 표 8 출생순위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 | 40 |
| 표 9 건강 상태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 | 41 |
| 표 10 결혼 지속 년 수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 | 42 |
| 표 11 자녀 유무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 | 42 |
| 표 12 부모와의 근접성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 | 43 |
| 표 13 친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 | 45 |
| 표 14 배우자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 | 45 |
| 표 15 성별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46 |
| 표 16 연령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47 |
| 표 17 교육 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48 |
| 표 18 직업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49 |
| 표 19 본인 월평균소득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50 |

| | |
|---|----|
| 표 20 월평균가계수입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51 |
| 표 21 출생순위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51 |
| 표 22 건강 상태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52 |
| 표 23 결혼 지속 년 수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52 |
| 표 24 자녀 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54 |
| 표 25 부모와의 근접성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54 |
| 표 26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55 |
| 표 27 부부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56 |
| 표 28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58 |
| 표 29 배우자 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60 |
| 표 30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62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간은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 마련인데, 결혼도 그 방식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가족관계에서의 정서적 만족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생활을 영위하려는 욕구가 증대되고(김민녀·채규만, 2006), 가족들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행위 등과 같은 가족 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박민자, 2006).

결혼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이란 가족 구성원들이 외부 사회와 맺고 있는 친척·친구·이웃 및 사회단체 등과의 관계를 말하며(이동원, 1984), 각 가족구성원들은 이러한 관계망 내에서 다양한 역할 관계를 유지해 나가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사회적 관계망은 가족원간의 관계 및 역할 구조, 권력 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족 내·외적인 관계들까지도 통제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 중에서도 친족은 필요시에 도와주는 의무와 애정 및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구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등 우리의 생애 있어서 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Adams, 1980; 이성희, 1986; 정진현, 1993).

선행 연구들(정진현, 1993; 김민녀 외, 2006; 박민자, 2006)은 결혼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현상이 특히 결혼 초기에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결혼 초기는 인간관계를 재조정하는 시기로 이 때 친·인척과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과 긴장을 경험함으로써 부부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친족관계를 논의하는 데 있어 여러 선행 연구들은 한국 사회가 도

시화·산업화됨으로써 핵가족 증가와 함께 친족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무용론적 입장과 도시사회 내에서도 친족관계는 계속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도시 생활에 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친족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Litwak & Szelenyi, 1969; 이동원, 1984; 오명희, 1997)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본 연구는 원가족을 경험한 후 속하게 되는 친밀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친족집단이 개인에게 있어 감정적 충족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비록 사회변화에 따라 친족 집단의 구조가 약화 또는 해체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면에서는 꼭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김주희, 1983)를 따르고자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친족 간에는 예전과는 다른 형태와 방식으로 정서적, 일상적 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가족 내에서 찾으려고 하는 등 친족관계가 여전히 개인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 이후 겪게 되는 갈등에서 비롯된 부정적 감정들에 대한 위로나 지지, 자녀 양육과 관련된 도움, 가사일과 같은 일상적인 도움 등에 대한 역할은 예나 지금이나 주로 가족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것은 현대 도시 사회의 핵가족이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일상적인 일손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친족들의 역할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선행 연구들(이동원, 1984; 이광자, 1988; 김경원, 1989; 오명희, 1997 등)의 결과와 그 맥락이 같다. 이와 관련된 예로서 2007년 여성부에서 여성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관리자 패널조사」에서 육아 실태에 관한 조사에서 여성관리자 77%가 자녀양육을 친정부모 또는 시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일보, 2008.06.26). 또 다른 예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2008)를 살펴보면,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친·인척 돌봄'의 비율이 8.1%(복수응답)라고 보고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인척은 대부분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이다(위클리경향 874호, 2010.5.11).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한국 사회가 정책적 또는 제도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친족중심적인 사회 특성상 부모는 다른 대체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친족관계에 관한 또 다른 연구들(이광자, 1988; 이원주, 1988; 김순옥

외, 2002)에서는 핵가족화가 점차 진행됨에 따라 친족관계에 있어서도 기존의 부계친뿐만 아니라 처계친과의 접촉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양계적 성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밀접한 상호작용을 유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광자(1988)의 연구는 원친과의 친족의식은 약화되어 가고 있지만 근친과의 친족의 중요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친가와외의 접촉이 더 빈번하고 그 결속 유대도 강하다고 하였다. 또한, 내용면에서 볼 때 아내의 경우 의례적, 의무적, 형식적 관계에서는 시가와의 접촉이 많지만 일상적, 정서적 도움의 경우 친정과의 관계를 더 많이 맺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에서 언급된 바로는, 친족과의 협력, 원조, 갈등 등 관계적 측면에서의 행위들이 다양한 형태로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기존의 상당수의 연구들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성별, 교육 수준, 부인의 취업여부, 출생 순위, 자녀 유무, 종교, 소득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에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결혼만족도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며, 오늘날처럼 핵가족화·소자녀화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족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친족이란,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하며 친척이라고도 한다. 친족의 범위는 사회,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사회와 시대, 환경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임의로 한정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개개인에게 대개 친족으로 인식되고, 결혼 생활에 있어 영향력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친부모와 혼인에 의해 맺어진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하였다.

또한, 결혼 초기에 원만한 친족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결혼 초기를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보고, 그 기간을 포함한 결혼 지속 년 수 10년 이하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부 특성 뿐만 아니라 기혼 남녀의 결혼만족도의 중요한 변인으로서 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들 변인들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는 원만한 부부 관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친족관계와 부부관계

친족관계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선 영국의 사회학자 Bott(1971)의 연구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Bott(1971)는 사회적관계망과 부부 역할 구조에 관한 연구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 연구 이후 Bott의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는 연구가 많아지면서 친족관계에 관한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Bott의 가설은 부부가 어떠한 형태로 사회적 관계망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부부의 역할 구조 및 부부 사이의 유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부부가 친족과의 '밀접한(closed)' 관계망을 가질수록 분리된 부부 역할 구조를 보이는 반면, '소원한(loose)' 관계망을 가질수록 공유적인 역할 구조를 나타냈다. Bott는 또한 사회적 관계망 중에서도 친족관계망은 가족의 도구적·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부부의 역할 분리가 조장되어 결혼 관계를 지지 또는 해체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관계망보다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친족관계망은 특히 여성에게 있어 중요한 관계망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친족관계는 부부간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결혼 생활을 유지 또는 해체시킬 수 있을 만큼의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오명희, 1997).

친족관계와 부부관계에 관한 또 다른 견해로, Duvall과 Miller(1985)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본가 부모와의 관계는 결혼으로 인해 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경우 새로 형성된 생식 가족에 대한 정체감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Lee(1979)는 결혼 초기에 인척 관계에서 갈등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이들의 주장은 친인척과의 관계에서의 갈등이 특히 결혼 초기에 많이 나타나며, 이는 곧 행복

한 결혼 생활을 저해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친족관계와 결혼만족도

결혼은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두 개인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특히 결혼 초기는 결혼 생활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며, 친족과의 관계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혼 초기 부부는 인간관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양가 부모와 많은 갈등과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 한국가족에서 흔히 나타나는 고부간의 갈등이나 친족관계에서의 갈등은 부부간의 갈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데, 이는 곧 부부의 결혼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점에 관하여 이신영(1984)과 김혜경(1987)의 결혼 초기 부부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부의 갈등 요인 중 인척 또는 친족 요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나은영·김혜숙(1997)은 여자가 남자보다 가족 및 친척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여자의 경우 가족관계와 친·인척 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현경자(2005)는 결혼의 안정을 저해하는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의 경우 친·인척 등의 가족 문제가 결혼 만족 및 결혼 안정을 좌우한다고 밝히면서 여성 자신들이 친·인척을 대하는 것에 대한 배우자와의 의견 불일치는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선미·전귀연(2001)은 친·인척관계가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친·인척과의 갈등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중요한 부부갈등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는 여성의 결혼 만족이 남성에 비해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며, 여성의 관계지향적인 성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친족관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결혼 초기 부부의 경우 시(처)가 부모와의 관계에 비해 본가 부모와의 관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부인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이상원, 1992).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배우자의 친족행동 만족도에 관한 연구(김수진·김순옥, 2001)에서 남편은 전반적으로 친가 성향임에 반해 아내는 의례적 행동에서는 시가성향, 그 밖의 행동(정서적, 일상적)에서는 친가 성향 또는 양계적 성향을 보였다. 그런데, 아내는 대체적으로 남편의 친가(남편의 친족) 대상 친족행동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남편의 처가 대상 친족행동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남편은 아내의 시가 대상의 의례적(친교적) 친족행동에 대해서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다른 영역에서의 친족행동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배우자의 친족행동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는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비록 예전에 비해 친족의 범위가 축소되고 친족 간의 교류가 감소하는 등 친족의 중요성이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보는 시선이 존재하지만 다양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친족관계는 자원을 획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원천으로서 오히려 친밀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도 분명 나타난다. 특히 점차 소자녀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현 상황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세대간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부부 관계에 보다 깊이 관여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결혼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인척 관계가 결혼 만족 내지는 결혼 생활의 안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지지함에 따라 양가 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3. 친족관계 개념 및 유형

정진현(1993)은 친족관계란 특정 사회에 있어 혈연적으로 서로 맺어진 가족 이외의 사람들 간의 기대된 태도나 행동 내지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정의될 수 있으며, 친족원들이 친족원간의 기능을 수행하는 '친족행위(kinship behavior)'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친족관계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친족행위를 통해 친족관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친족관계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면, 친족행위는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되고 있다. 이동원(1984)은 친족행위를 의례적 관계, 정서적 관계, 일상적 도움으로 구분하였고, 이광자(1988)는 의례적 관계, 여가활동, 일상적 도움, 경제적 도움으로 분류하였으며, 정진현(1993)은 친족행동을 사교행위, 가사 협조 행위, 의례적인 행위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김성희(1992)는 도시 핵가족 주부의 친족관계 연구에서 친족관계를 의례적 관계, 사회적 활동, 일상적 도움, 경제적 도움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주희·오명희(1998)의 친족관계망 밀접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친족관계를 정서적, 일상적, 경제적, 친교적 관계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서 정서적 관계란 문제 해결에 대한 충고나 애정과 같은 심리적인 지지를 주고받는 관계, 일상적 관계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물질적인 서비스를 주고받는 관계를 의미한다. 경제적 관계란 물품이나 돈의 제공 혹은 대여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하며, 친교적 관계란 경조사나 여가시의 대안적 교류를 말한다.

한편, 이러한 친족관계 행위에 대하여 김수진·김순옥(2001)의 연구에서는 행하는 대상에 따라 친가(親家) 성향, 처(시)가 성향, 친가와 처(시)가에 공평한 행동을 보이는 양계 성향으로 구분하고 있다. 친족관계 행동 성향에 관한 연구들은 일상적 도움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친족관계에서 본가친족과의 유대가 높은 친가지향형(원가족)으로 나타나며(이광자, 1998), 남성의 친족관계는 대체적으로 친가중심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이원주, 1988; 박시라, 1999). 그러나 일상적 관계와 친교적 관계에서는 친가성향이 높지만 그 외 영역에서는 양계적 성향을 보인다고 밝힌 연구도 있다(이광자, 1988). 즉, 오늘날 우리사회의 친족관계가 여전히 부계혈통을 기반으로 한 가부장적 사회이기는 하지만, 시가친 못지않게 친정친(처가친)과도 활발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양계지향적 친족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선행 연구들은 남성의 경우 대체적으로 친족행동이 친가적 성향이 나타나고, 여성의 경우는 시가 성향 또는 양계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영역(일상적 도움, 경제적 도움, 가사도움 등)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점차 친가 성향에서 양계적 성향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눈에 띄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강력한 부계 중심적 사회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부계 친족과의 유대관계가 높고, 영역에 따라서는 친족행동 성향이 다르게 나타

나기도 하므로 확실한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기도 하였다(김수진·김순옥, 2001).

오늘날 신세대 여성들의 시가와 친정 관계에서의 양계화 현상을 조명한 김주희(2009)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지리적 접근성은 친가보다는 시가와 가까운 경우가 월등히 많고 시가에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친정에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사례는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자녀 양육에 관한 도움은 거의 친정으로부터 제공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리적 접근성과 경제적 지원은 부계지향적이며, 자녀양육지원(혹은 정서적 지원)은 친정으로부터 얻는 것으로 볼 때 양계화 과정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주 규정에 대한 부거 의식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계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친족관계가 표면적으로는 양계적 성향을 띠고 있으나, 의례적 행동이나 경제적 지원은 부계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일상적 도움이나 정서적 지원 등에서 친정 친(처가친)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양계화로 볼 수 없으며, 모계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친족관계를 오명희(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어려운 일이나 중요한 일을 상의하거나 심리적 위안을 얻는 등의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정서적 관계 행위, 가사일 또는 필요할 때 자녀를 돌봐 주는 등 평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일상적 관계 행위,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금전적으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원조하는 등의 경제적 관계 행위, 휴가나 여가를 함께 보내거나 친목모임 등을 함께 하는 등의 친교적 관계 행위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친족관계 밀접도는 '연구 대상자들과 양가 부모들과의 정서적 관계, 일상적 관계, 경제적 관계와 친교적 관계에 대한 친밀한 정도'를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친족관계 밀접도는 양가 부모로 나누어 측정하고,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남녀를 따로 분석하여 앞서 밝힌 친족관계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조명하고자 하였다.

4. 친족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친족관계

친족관계망 및 친족 간의 관계(유대)를 연구한 국내외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광자, 1989; 이상원, 1992; 조정문, 1997 등)은 친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주로 연령, 출생순위,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등을 지적하였으며, 일부 연구들은 여성의 취업여부, 생활수준을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지위, 양가 부모와의 지리적 근접성, 양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등 다양한 사회적 배경 변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이 본 연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친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연관 지어 친족관계를 고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앞서 언급하지 않은 직업, 건강 상태, 자녀 유무를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성별

서구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활발한 친족 유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친족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도 여성이 더 높고, 남성의 처계친 유대가 매우 활발하다고 하였다(박시라, 1997).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성이 친족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남성 혈족 뿐만 아니라 자기 혈족과의 관계도 중요시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여성이 친족과 더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이광자, 1989; 이상원, 1992; 조정문, 1997).

(2) 연령

선행 연구들(이동원, 1984; 이광자, 1988)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족과의 접촉 빈도가 감소한다는 대체로 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에 거주하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한국도시주민의 친족관계와 친족의식에 관한 정진현(1993)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 핵가족 부부의 친족관계는 전반적으로 다소 밀접하게 나타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역할과 요구들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친족관계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부인의 연령은 어릴수록 친족과의 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동원(1984)은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한 친족관계망에 관한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친가로부터 비경제적 도움(일손 등)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하였으며, 전미경(1993)은 도시 저소득층의 친족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일상적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3) 교육 수준

교육 수준과 친족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치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정진현(1993)은 학력이 낮을수록 친족관계 및 친족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순옥·김수진(2001)은 결혼 초기 부부의 친족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고졸이하의 집단이 대졸, 대학원졸 이상의 집단보다 친족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친족과의 유대 및 관계에 관한 또 다른 선행 연구들(이효재, 1971; 이동원, 1984; 이상원, 1992)에서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계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강하여 친가지향적인 성향이 나타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또한, 아내의 학력이 높을수록 친가와와의 접촉 빈도가 높고 친가와 밀접한 유대 관계가 나타났다고 하였다(이동원, 1984; 한남제, 1988).

한편, 이동원(1984)은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시가로부터 받는 경제적 도움은 감소하는 반면 친가로부터 받는 경제적 도움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주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시가에 대한 정서적 친밀도는 낮아지지만 친가와와는 관련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김경원, 1989). 또한, 이경희(1988)는 주부의 교육 수준 자체는 친부모 또는 시부모와의 친밀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4) 소득 수준

도시민을 중심으로 친족관계를 연구한 한남제(1988)와 전미경(1992)의 연구에 따르면, 총소득이 높을수록 친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으며, 이효재(1971)는 수입이 높은 층에서 양가와의 관계가 모두 활발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중간소득 계층인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이영희, 1988). 김주희(1992)는 도시 저소득층의 친족관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도시 저소득층의 경우 원친과의 관계는 약화되고 있지만 근친과의 관계의 중요성은 지속되고 있으며, 주로 경제적 관계를 제외한 정서적, 사교적, 의례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원(1992)과 박시라(1999)는 Goode와 Blood가 언급했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친족과의 상호작용이 높아지고, 이는 풍부한 자원으로 자신의 친족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일치된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국내의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친족들과의 접촉 빈도가 많아지고 접촉 범위도 넓어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이동원, 1984; 이원주, 1988).

(5) 출생 순위

선행 연구들(이효재, 1971; 이동원, 1984; 김경원, 1989)은 장남이나 외아들의 부인은 시가와의 접촉 빈도가 높고 기능적 유대가 활발하지만 지차 며느리는 친정과의 유대가 활발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출생순위에 따른 친족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조정문(1997)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결혼 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자신의 출생순위가 장남이나 독자라고 해서 본가 쪽 친족을 더 중요시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으며, 한남제(1988)는 도시주민의 친족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남편이 장남이 아닌 경우 오히려 친족 간의 접촉 빈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도시 핵가족의 친족관계에 관한 김성희(1992)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외동딸인 경우 다른 자녀보다 친가와의 유대 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원주(1989)는 서울에 거주하는 기혼남녀의 친족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장녀인 경우보다 그 외의 딸이 남편의 부계 친족을 더 가깝게 여기

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힌 바 있다.

(6) 결혼 지속 년 수

가족생활주기는 인간이 가족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결혼, 출산, 육아, 노후 등 각 단계에 걸친 시간적 연속을 뜻하는 것으로 결혼 지속 기간과 관련이 매우 깊다. 따라서 가족생활주기와 친족관계를 연관 지어 살펴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경희(1988)는 가족생활주기 단계가 후기로 갈수록 친족과의 접촉 빈도는 감소한다고 하였으며, 박시라(1999)는 자녀양육기의 기혼남성은 모든 유대 영역에서 처가보다는 친가와 더 활발한 유대를 맺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선행 연구는, 결혼과 자녀의 출산은 친족을 중요시하고 의지하게 하는 사건으로서 신혼기와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는 친족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다가 자녀교육기와 자녀성인기에 이르면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Fischer 외, 1982; 김경원, 1989). 이들은 가족생활주기가 가장 낮거나 높을수록 친족과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결혼 초기의 부부들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 후에도 그들의 친족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며 친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이 밖에도, 이원주(1988)는 자녀 출산으로 친족과의 유대가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친정어머니 또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밀접하게 되어 상호작용이 활발해진다고 하였다.

(7) 부모와의 근접성

거주지의 근접성과 친족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해 혈연의 중요성이 약화되면서 원친보다는 가까이 거주하는 근친과 더욱 밀접한 친족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였다(박시라, 1999). 선행 연구들(이광자, 1988; 김경원, 1989; 조정문, 1997)은 특히 부모와 자녀가 가까이 거주할수록 상호작용이 증가한다고 지적하였으며, 김성희(1992)는 도시 핵가족 주부의 친족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시가·친가의 부모와 형제자매와의 유대가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

나 박시라(1999)는 경제적 도움이나 감정적 지지 등과 같이 신체적 접촉이 필요 없는 것들은 지리적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해 언급하면서, 연구 결과 자녀양육기 기혼남성의 경우 기능적 유대, 친목적 유대, 의례적 유대 모두 처가보다는 친가(본가)와 더 활발한 유대를 맺고 있으며, 지리적 접근성에 따라 친족관계가 긴밀한 유대를 맺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혈연 중심적이기는 하지만,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친족관계도 편의와 실리를 중시하는 교환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 부모의 경제적 수준

경제적 수준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범위 내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선행 연구는 대체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동원, 1984; 이원주, 1988; 이광자, 1989)이 대부분이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친족관계가 활발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친족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조정문(1997)의 연구에 따르면, 부인의 경우 친정과 시가의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거나 친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 경우 친족관계의 양계화 현상이 뚜렷하고, 시가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 경우 친족관계의 양계화 정도가 저조하다고 하였다. 또한, 결혼한 자녀의 경우 처가의 경제적 능력이 높을수록 처가 부모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박시라(1999)는 자녀양육기 기혼남성의 친족유대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본가와 친가의 기능적 유대에 매우 유의하다고 밝히면서, 오늘날 친족관계가 혈연과 의무에 바탕을 둔 친족관계에서 실리적 성격이 강한 관계로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5. 결혼만족도

1) 결혼만족도의 정의

사전적 의미에서 결혼만족도는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로서, 성격상 매우 주관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결혼만족도를 개념화하기 위한 시도가 꾸준히 있어 왔으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들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고 있는 결혼만족도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박성희, 2001, 재인용). 하나는 결혼만족도를 객관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것으로 '결혼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 사이에서의 일치 정도'로 정의하였고(Lenthall, 1977), 다른 하나는 결혼만족도를 주관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것으로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즐거움, 만족, 행복 등의 주관적 감정이나 태도의 정도'로 정의하였다(Hawkins, 1968; Jeries, 197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견해 중 결혼만족도를 주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개인이 그들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만족하는가에서부터 불만족하는가에 이르는 연속선상의 태도'로 정의한 Burgers & Locke(1945)의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2) 결혼만족도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결혼만족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박경희(2001)는 결혼 초기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인으로 부부 관계 및 경제, 건강, 사회 활동, 직업, 자녀, 친·인척 관계, 친구, 성격, 자아개념 등 광범위한 측면들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조유리(2000)는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상호작용 변인 중에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 의사소통수준은 결혼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조정문, 1995; 이미숙, 2000; 이선미 외, 2001; 한주리 외, 2004; 하상희, 2008 등)과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부 특성, 친족관계까지 확

대하여 이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직업, 본인 월평균수입, 월 평균가계수입, 출생 순위, 건강 상태, 결혼 지속 년 수, 자녀 유무, 양가 부모와의 근접성, 양가 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였다. 이 중 출생 순위와 양가 부모와의 근접성, 양가 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친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지만,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거의 모든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요 변인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 선행 연구를 고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부부 특성 영역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조정문, 1995; 이미숙, 2000; 이선미 외, 2001; 임유진 외, 2008 등)에서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주요 변인으로 다루고 있는 의사소통, 성역할태도, 성만족도, 의사결정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구 결과가 본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친족관계는 정서적 관계, 일상적 관계, 경제적 관계, 친교적 관계로 구분하였으며, 친부모와 배우자 부모로 나누어 영역별 관계 정도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Acitelli(2001)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경제적 여유, 애정 표현, 성적 만족, 종교와 정치 등에 대한 부부의 유사한 신념, 상호신뢰감, 공동 가사와 자녀 양육, 대화, 애착,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공유, 서로 돌보기, 부부 관계 지속에 대한 확신 및 함께 지내는 것 등 13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김향련·고재홍, 2007). 또한, 여러 선행 연구들은 성별, 취업 상태(부인의 취업여부를 포함), 직업, 소득, 교육 수준, 연령, 자녀 요인 등의 변인들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박태온, 1983; 이미숙, 1997; 김수진, 2001; 조은영, 2003).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결혼만족도

① 성별

성별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관한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동원, 1984; 이미숙, 1997; 이정은, 1999; 현경자 외, 2002; 조은영, 2003 등)은 남성들의 결혼만족도가 여성에 비해 높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이미숙(1997)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 요인 연구를 통해 남성위주

의 사회구조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사회 내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보다 많은 역할과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부인에 비해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② 연령

선행 연구들(한남제, 1988; 오경희, 1997; 유시순, 2003; 조은영, 2003; 현경자, 2005 등)에 따르면,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만족도가 점차로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이 가족생활주기와 관련되어 있으며, 연령대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서 결혼만족도에 대한 영향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기혼 직장여성의 결혼만족도 관련 요인을 밝힌 손연정·유문숙(2008)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특히 연령이 30대 이하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③ 교육 수준

교육 수준은 직업이나 소득과 같은 성취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정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강호, 2006). 따라서,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박태온, 1983; 유영주, 1986; 최규련, 1988). 또한, 부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으며(오경희, 1997), 아내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명자, 1985; 조정문, 1995).

④ 직업

직업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직업은 어떠한 형태로든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다.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로서 박태온(1983)은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주부의 건강, 능력, 직업에 대한 자신감, 부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인간관계

에 대한 의사소통능력 등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인이 전문직인 경우 직무 수행에 따른 시간과 에너지 부담으로 인해 부부 관계에 긴장을 야기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부인의 취업 여부 뿐만 아니라 부인의 취업에 따른 남편의 부정적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이미숙(1997)도 직업에 대한 태도 및 남편의 태도와 지지 여부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이 밖에도,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여러 여건과 상황에 따라 여성 본인이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직업 유무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아내의 직업 유무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조정문, 1995)와는 달리 미취업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김명자, 1985; 현경자, 2005)도 있다.

⑤ 소득 수준

가정의 소득 수준은 대체로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김명자, 1997; 이옥진, 1982; 이미숙, 1985). 그러나, 소득 수준이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어떤 연구에서는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이동원, 1988; 김은창, 1992), 어떤 연구에서는 경제 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은희, 1975).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중류층의 경우 저소득층과 달리 소득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한남제, 1975). 또한, 유영주(1979)와 조정문(1995)의 연구에서는 수입과 결혼만족도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한편, 이미숙(1990)은 소득 자체보다는 소득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경제적 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⑥ 건강 상태

건강 상태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결혼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다.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로서, 박태운(1983)은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현경자(2005)는 남성의 경우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강기연(1995)은 주부의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본인의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고, 현경자(2002)는 여성의 경우 남편의 건강이 좋을수록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⑦ 결혼 지속 년 수

결혼 지속 년 수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여러 연구들(한남제, 1988; 오경희, 1997; 김수연, 2000)에서 연령이 낮거나 신혼 부부들의 결혼만족도가 일관되게 높았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 따르면, 결혼만족도는 결혼 초기에 높았다가 그 후 점차 감소하고 후기에 다시 증가하는 U자형 곡선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조유리, 2000), 한편으로는 결혼 지속 기간이 증가할수록 결혼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유영주, 1979; 최규련, 1984).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구획하는 방식에 따른 차이 또는 표본 수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

⑧ 자녀 유무

자녀 유무와 관련된 결혼만족도는 무자녀일 때 높게 나타나며, 자녀가 어릴수록 결혼만족도가 낮다는 보고가 많다(조정문, 1995; 이미숙, 1997; 오경희, 1997). 또한, 자녀가 많을수록 갈등 수준이 높아 결혼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다(김민녀·채규만, 2006). 그러나 이와 상반되는 연구 결과로서, 김미령(2009)은 연령에 따른 여성의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한 연구를 통해 자녀가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녀가 어릴 경우 결혼 생활에 안정을 준다는 연구 결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⑨ 부모의 경제적 수준

김미숙(1989)은 도시 부부의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에서 결혼 대상의 경

우 유사한 가족 출신인 것이 바람직하며, 현실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거주 지역, 학교, 직장 등이 일정하게 결정되므로 교제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동일계층에 제한된다는 것이다. 또한, 김미숙(1989)은 이 연구에서 Burgess와 Locke의 주장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가족 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을 상반된 성격, 불안, 좌절 등과 같은 정신적 특징과 문화적 특징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만약 부부가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졌거나 결혼 이후 상이한 행위 형식을 가졌을 때 문화적 갈등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국내 연구로서 한남제(1988)는 양가의 경제적 지위가 유사할 때 가족안정성이 높고, 그 다음으로 남편 가족, 부인 가족의 순으로 가족안정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결혼 만족에 관한 다수의 연구 논문을 검토하였으나 이에 관한 자료는 많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2) 부부 특성과 결혼만족도

①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

부부가 상호작용하는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지만, 결혼과 더불어 부부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요소로 역할과 경계의 설정, 의사소통, 친밀감과 부부의 성을 들 수 있다(정현숙·유계숙, 2001). 이 중에서도 의사소통능력은 결혼만족도와 깊은 관련성을 보이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 부부간 대화 기술과 문제해결능력이 결혼 생활을 만족스럽게 유지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한주리·허경호, 2004).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서 의사소통을 다룬 연구는 사실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선미·전귀연(2001)은 오늘날 동등하고 우애적인 부부 관계를 지향하는 부부중심의 핵가족 하에서는 부부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뒷받침해 주는 요인으로 의사소통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불행

하거나 실패한 결혼 생활에서 부부간의 의사소통 실패는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언급하였다. 또 다른 연구들(박태영, 1998; 현경자, 2004; 임유진, 2008)은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며, 부부간의 의사소통 부족은 중요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송말희, 1990). 선행 연구들은 이처럼 결혼 생활에 있어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하여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의사소통은 일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갈등대처방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며, 긍정적인 의사소통기술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도, 김화자·윤중희(1991)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높을수록 부부만족도가 높다고 하였고, 한주리·허경호(2004)는 의사소통능력이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아내의 경우 자신의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남편의 경우 아내의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의사소통양식과 의사소통도가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오경희, 1997).

②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

조정문(1995)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결혼 생활에 대한 공평성 인지는 결혼 생활 만족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밝히면서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여성은 자신이 이익을 본다고 생각할 때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여성은 공평하다고 인식할 때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사회 내에서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던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에게 가정-일을 양립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우게 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즉, 여성은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점차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게 되었지만, 남성의 성역할태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은 결혼 생활이 불공평하다고 인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미숙(2000)의 연구에서도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일치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여성이 결혼만족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성역할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최유경(2002)의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시가관계에 만족스러운 영향을 주며, 이는 부부의 결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조혜선(2003)은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남편의 성역할관은 진보적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반면 여성은 보수적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부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때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③ 성만족도와 결혼만족도

성생활 만족이란 부부간의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상호관계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이다. 성은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자기표현이자 인간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활력소이며 건강한 성은 행복한 부부 관계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준다(홍성목, 1999; 고정애, 2004). 이선미·전귀연(2001)은 부부의 성생활에 대하여 단순한 성행위의 적응이 아닌 부부간의 감정, 애정의 일치도, 욕구의 결합들을 의미하는 상호결합적인 적응으로서, 결혼 생활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부부의 성만족도는 성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연구로 박남숙(2001)은 배우자의 성적인 욕구, 배우자가 원하는 행동이나 방법에 대한 솔직하고도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성적인 만족도를 높여준다고 하였다. 부부의 의사소통유형과 성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한 김요완(2002)은 개방적이고 감정의 노출 정도가 높은 유형의 의사소통을 하는 부부의 성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와 감정의 교류가 부부의 성 만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하였다.

성생활에서의 갈등에 관한 연구들은 부부의 성적 관계에 대한 불만족이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라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선미·전귀연(2001)은 20-30대 여성의 경우 부부 간의 성적 요인으로 인한 갈등이

높을수록 부부만족도가 낮다고 하였고, 현경자(2005)는 부부간의 갈등이 결혼만족도를 낮추며, 친밀감을 느낄수록 결혼 생활에 만족을 느낀다고 하였다. 한편, 이경옥·김영희(2004)는 성만족도는 결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들 선행 연구들은 성특성, 성의사소통, 성일치도, 성관계 빈도가 성만족도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 중 성일치도는 성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성관계 빈도가 높을수록 성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④ 의사결정권과 결혼만족도

의사결정권은 일종의 권력의 결과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부부 관계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 중 하나이다. 의사결정권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선행 연구들(정지숙, 1994; 강기연, 1995; 윤현숙, 2004 등)은 대개 부부의 권력이 한 배우자에게 편중된 남편우위형이나 부인우위형보다는 평등하거나 또는 공동의 의사결정을 할 때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즉, 공평성 인지가 부부의 정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평하다고 인지할수록 결혼 및 가정 생활 만족도가 높고 관계가 불평등하다고 인지할수록 결혼적응도가 낮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이정우·강기연, 2001)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박숙경(1996)과 정지숙(1994)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의 의사결정유형이 공동형, 자율형, 남편우위형, 부인우위형 순으로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강기연(1995)도 부부가 자녀의 진학 및 교육, 공휴일 계획 등의 문제에서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정생활 만족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Shukla와 Kapoor(1999)의 연구에 따르면, 공동 의사결정유형과 남편 우위의 의사결정유형에서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teil(1997)의 연구에서는 남편 우위의 의사결정유형을 지닌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의사결정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한경혜·장미나, 1993).

이상의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부부의 의사결정 참여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 연구들은

의사결정권을 측정하는 데 있어 다각도로 접근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앞으로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해석된 의사결정권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밝히는 많은 후속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6. 주요 용어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족

친족이란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하며 친척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친족을 혈족과 인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률상 혈족의 범위는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즉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등을 포함하며, 인척은 혼인에 의하여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 즉 시부모, 처부모, 며느리, 사위, 형수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친족은 결혼 생활에 있어 영향력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친부모와 혼인에 의해 맺어진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친족의 범위는 결혼한 자녀와 친부모 또는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로 정의한다.

2) 친족관계와 친족관계 밀접도

친족관계란 친족원들이 친족원간의 기능을 수행하는 '친족행위(kinship behavior)'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정진현, 1993)으로, 친족관계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의 친족관계는 정서적, 일상적, 경제적, 친교적 관계를 포함한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한 김주희·오명희(1998)의 연구를 그대로 따랐다. 네 가지 영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정서적 관계란 문제 해결에 대한 충고나 애정과 같은 심리적인 지지를 주고받는 관계, 일상적 관계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물질적인 서비스를 주고받는 관계를 의미한다. 또한, 경제적 관계란 물품이나 돈의 제공 혹은 대여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하며, 친교적 관계란 경조사나 여가시의 대안적 교류를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친족관계 밀접도란

‘연구 대상자들과 양가 부모들과의 정서적 관계, 일상적 관계, 경제적 관계와 친교적 관계에 대한 친밀한 정도’를 의미한다.

3) 부부 특성

부부 특성이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제외한 주요 변인으로서,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이미 결혼 생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었던 의사소통, 성역할태도, 성만족도,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네 개 영역을 본 연구에 맞게 임의로 재구성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4)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로서 매우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진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개념은 크게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결혼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 사이의 일치 정도’로 정의되며, 다른 하나는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즐거움, 만족, 행복 등의 주관적 감정이나 태도의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측면에서 ‘개인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한 태도의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Ⅲ.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혼 지속 년 수 10년 이하인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부부 특성 변인에 따라 친족관계 밀접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동시에 사회인구학적 특성, 부부 특성, 양가 부모에 대한 친족관계 밀접도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친족관계 밀접도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부 특성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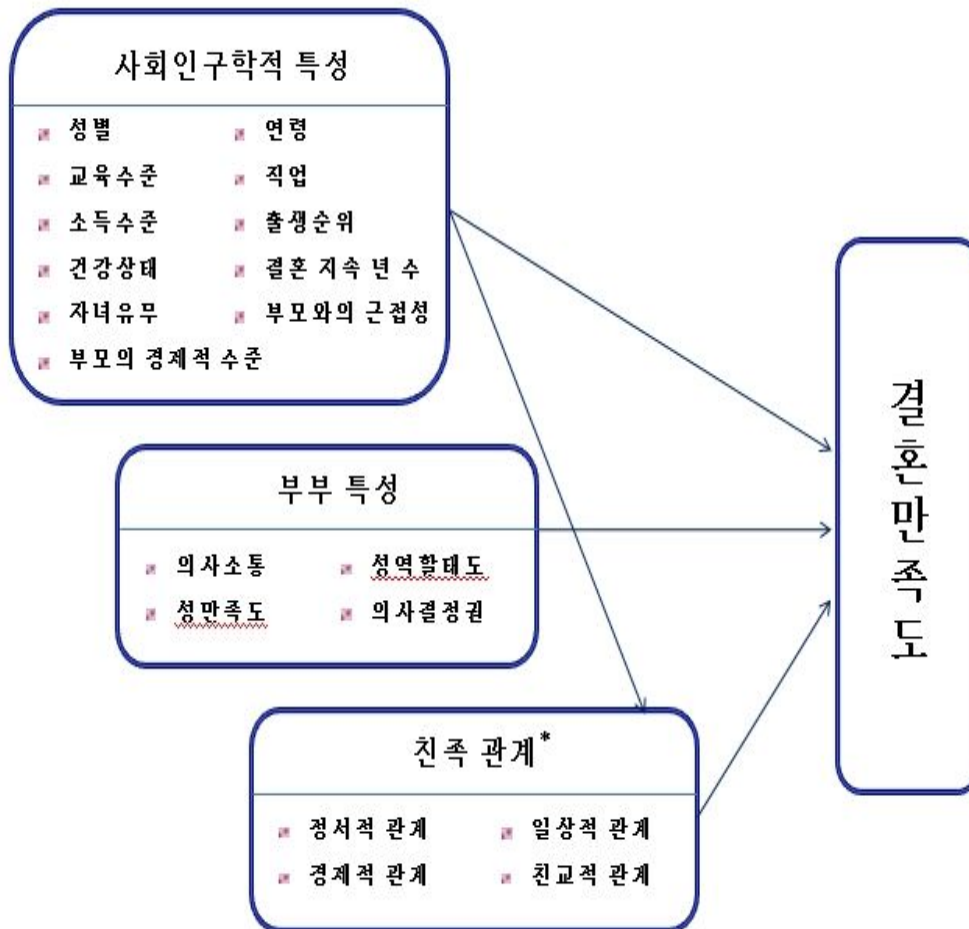
<연구문제 4> 친족관계 밀접도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5> 사회인구학적 특성, 부부 특성, 친족관계 밀접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 모형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혼 지속 년 수 10년 이하인 기혼 남녀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 그림 1 > 연구 모형



3.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결혼 지속 년 수 10년 이하의 기혼남녀로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가족생활주기상 새로운 친족관계를 확장하는 결혼 초기는 결혼 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고 조율해 나가는 시기이며,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할 때 어린 자녀 특히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친족행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친족행동을 파악하기에 매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둘째, 결혼 지속 년 수 10년 정도에 심각한 부부 갈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로서 통계청 자료(2010)를 살펴보면, 2009년 동거기간에 따른 이혼건수는 0~4년이 33,718건, 5~9년이 23,636건으로 전체 123,999건의 46%를 차지하였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09년도 이혼상담 통계자료(2010.03)를 살펴보면, 이혼상담건수는 혼인기간이 1-11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많다고 보고하였다. 즉, 결혼 지속 년 수 10년을 전후하여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갈등 요인들은 결혼 안정 및 결혼 만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시기는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본 연구의 대상은 결혼 지속 년 수 10년 이하로 한정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2010년 4월 12일 ~ 2010년 4월 15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0부를 배포·수거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0년 4월 19일 ~ 2010년 4월 30일에 걸쳐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포함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혼 지속 년 수 10년 이하인 기혼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리서치회사¹⁾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300부를 배포, 회수하였다. 또한, snow-ball sampling을 적용하여 설문지를 직접 주고받거나 우편, e-mail을 통해 100부를 배포하고 96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조사대상자가 아니거나 중복 응답, 응답이 불충분한 52부를 제외한 344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1) 월드서브웨이 www.wsurvey.net

2) 측정 도구

측정 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부 특성, 친족관계, 결혼만족도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출생순위, 건강 상태, 자녀 유무, 직업, 본인월평균소득, 월평균가계수입, 결혼 지속 년 수, 양가 부모와의 근접성, 양가 부모의 경제적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부 특성 영역은 총 12문항으로 의사소통, 성역할태도, 성만족도, 의사결정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친족관계는 총 18문항으로 정서적 관계, 일상적 관계, 경제적 관계, 친교적 관계로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3) 척도의 구성

(1) 친족관계 밀접도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녀의 친족관계 밀접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미 선행 연구들(김성희, 1991; 전미경, 1992; 강성희, 1996; 김주희 외, 1998)에서 사용된 바 있는 척도를 검토한 후 김주희·오명희(1998)의 연구에서 친족들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밀접한가를 판별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정서적 관계-5문항, 일상적 관계-4문항, 경제적 관계-5문항, 친교적 관계-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최소 18점 ~ 최대 90점 범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친족관계가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 목적에 따라 각 항목들은 친부모와 배우자의 부모(시가 또는 처가)로 대상을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대상별 합산 점수에 따라 전반적인 친족관계 밀접도는 물론 네 개 영역별 친족관계 밀접도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정서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는 최소 1점에서 최대 25점 범위이며, 일상적 관계와 친교적 관계는 최소 1점에서 최대 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가 밀접한 것을 의미한다. 친족관계 척도의 내적 신뢰도를 측정할 결과, 친부모 대상일 때 Cronbach's α 는 .807, 배우자 부모 대상일 때 Cronbach's α 는 .868이었다.

(2) 부부 특성

부부 특성은 4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의사소통, 성역할태도, 성만족도, 의사결정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부 특성의 각 영역은 결혼 생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많은 선행 연구들(조정문, 1995; 이미숙, 2000; 이선미 외, 2001; 임유진, 2008 등)에서 이미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그 내용을 일부 포함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서, 선행 연구들(정지숙, 1994; 이정은, 1999; 김요완, 2000; 윤현숙 2004 등)에서 사용된 척도의 일부 항목을 선별·수정하여 영역별 3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7개의 긍정적인 문항과 5개의 부정적인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문항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일부 모형에 대해서는 역채점하였다. 합산 점수는 최소 12점 ~ 최대 60점 범위이며, 각 영역별 점수와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고 보았다. 측정도구들의 타당도는 안면 타당도에 의하여 검토되었으며, 척도의 내적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mbach's α 는 .763이었다.

(3) 결혼만족도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Schumm(1986) 등이 개발한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KMSS) 척도를 사용하였다. KMSS는 단일차원의 척도로서 결혼 생활에서의 다양한 현상을 하나로 축약해 제시함으로써 매우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시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척도의 구성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과 배우자로서의 만족,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을 포함한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점)에서부터 '항상 만족한다'(7점)에 이르기까지 7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KMSS 척도의 신뢰도는 신뢰도 계수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윤경자, 1977; 정현숙, 1997; 이선미, 2001; 이주연, 2003 등),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Crombach's α 는 .937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 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초 통계와 t-test, one-way ANOVA,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연구문제에 따라 실시한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1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2, 3, 4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부부 특성, 친족관계 밀접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문제 5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부부 특성, 친족관계 밀접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비교적 친족관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결혼 초기의 기혼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지속 년 수 10년 이하인 기혼남녀 344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여성은 175명(50.9%), 남성은 169명(49.1%)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4.1세로 30대(71.2%)가 가장 많았다.

교육 수준은 대학교졸(53.0%), 전문대졸(20.9%), 고등학교졸(14.2%), 대학원졸(11.9%)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직이 53.5%로 가장 많았으며, 전업 주부(18.6%), 서비스·생산직(11.6%), 관리·전문직(7.8%), 기타(4.4%), 교육직(4.1%) 순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는 장남 또는 장녀가 164명(47.7%), 차남 이하 또는 차녀 이하가 161명(46.8%)으로 전체 344명 중 94.5%를 차지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월평균소득은 239.8만원으로 101만원 ~ 300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201만원 ~ 300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1%로 가장 높았고, 101만원 ~ 200만원이 25.3%, 301만원 ~ 400만원이 16.8%, 소득이 없는 경우는 16.0%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인 경우도 9.5%를 차지하였다.

월평균가계수입은 301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69.2%를 차지하였으며, 301만원 ~ 400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201만원 ~ 300만원이 23.3%, 501만원 이상인 경우도 21.2%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건강 상태는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96.2%로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결혼 지속 년 수는 1년 1개월 이상 ~ 5년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이 191명(55.6%)로 나타났으며, 5년 1개월 이상 ~ 10년 이하가 114명(33.1%), 1년 이하가 39명(11.3%)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수는 223명(64.8%)으로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수(121명, 35.2%)의 거의 2배에 가까웠다.

또한 다른 가족원과의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은 6.1%(21명)로 친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과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부모와의 거주지 '근접성은 친부모와 배우자의 부모를 각각 응답토록 하였으며, '동거', '같은 동네', '같은 시(도)구', '같은 시(도)', '수도권 지역',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친부모와의 거주지 근접성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가 30.5%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지역(해외, 수도권 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23.8%,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경우'가 15.1%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부모와의 거주지 근접성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가 34.6%로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해외, 수도권 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28.8%, '같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가 11.9%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모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비율은 9%로 친부모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비율(15.1%)보다 낮게 나타났다. 동거 비율은 친부모와의 동거가 7.8%, 배우자 부모와의 동거가 6.1%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친부모와 배우자 부모의 경제적 수준 모두 '중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중(41.9%), '중하(26.2%)', '상중(22.4%)', '하(6.4%)', '상(3.2%)' 순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중(45.9%)', '중하(23.0%)', '상중(16.6%)', '하(9.3%)', '상(5.2%)'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344)

| 변 수 | 구 분 | N(%) | M(SD) |
|---------------|---------------|------------|---------------|
| 성 별 | 남성 | 169 (49.1) | |
| | 여성 | 175 (50.9) | |
| 연 령 | 20대 | 48 (14.0) | 34.1 (4.8) |
| | 30대 | 245 (71.2) | |
| | 40대 | 51 (14.8) | |
| 교육 수준 | 고졸 이하 | 49 (14.2) | |
| | 전문대졸 | 72 (20.9) | |
| | 대학교졸 | 182 (53.0) | |
| | 대학원졸 | 41 (11.9) | |
| 직 업 | 전업주부 | 64 (18.6) | |
| | 사무직 | 184 (53.5) | |
| | 서비스·생산직 | 40 (11.6) | |
| | 관리·전문직 | 27 (7.8) | |
| | 교육직 | 14 (4.1) | |
| | 기타 | 15 (4.4) | |
| | (학생, 자영업 등) | | |
| (본인) 월평균소득 | 소득 없음 | 55 (16.0) | 239.8 (170.0) |
| | 100만원 이하 | 11 (3.2) | |
| | 101만원 ~ 200만원 | 87 (25.3) | |
| | 201만원 ~ 300만원 | 100 (29.1) | |
| | 301만원 ~ 400만원 | 58 (16.8) | |
| | 401만원 ~ 500만원 | 19 (5.5) | |
| 501 원 이상 | 14 (4.1) | | |
| 월평균 가계수입 | 100만원 이하 | 9 (2.6) | |
| | 101만원 ~ 200만원 | 17 (4.9) | |
| | 201만원 ~ 300만원 | 80 (23.3) | |
| | 301만원 ~ 400만원 | 98 (28.5) | |
| | 401만원 ~ 500만원 | 67 (19.5) | |
| 501만원 이상 | 73 (21.2) | | |

<표 1> 계속

(N=344)

| 변 수 | 구 분 | N(%) | | M(SD) | |
|-------------------|----------------------|------|--------|-------|--------|
| 건강 상태 | 매우 건강 | 61 | (17.7) | | |
| | 건강한 편 | 178 | (51.7) | | |
| | 보통 | 92 | (26.8) | | |
| | 나쁜 편 | 13 | (3.8) | | |
| 결혼 지속 년 수 | 1년 이하 | 39 | (11.3) | | |
| | 1년1개월 이상 ~ 5년 이하 | 191 | (55.6) | | |
| | 5년1개월 이상 ~ 10년 이하 | 114 | (33.1) | | |
| | | | | | |
| 자녀 유무 | 없음 | 121 | (35.2) | | |
| | 있음 | 223 | (64.8) | | |
| | | 친부모 | 배우자 부모 | | |
| 부모와의 근접성 | 동거 | 27 | (7.8) | 21 | (6.1) |
| | 같은 동네 | 52 | (15.1) | 31 | (9.0) |
| | 같은 시(도)/구 | 38 | (11.0) | 33 | (9.6) |
| | 같은 시(도) | 40 | (11.6) | 41 | (11.9) |
| | 수도권지역 (서울/경기/인천) | 105 | (30.5) | 119 | (34.6) |
| | 기타 지역 (해외, 수도권외) | 82 | (23.8) | 99 | (28.8) |
| | | | | | |
| 부모의 경제적 수 준 | 상 | 11 | (3.2) | 18 | (5.2) |
| | 상중 | 77 | (22.4) | 57 | (16.6) |
| | 중 | 144 | (41.9) | 158 | (45.9) |
| | 중하 | 90 | (26.2) | 79 | (23.0) |
| | 하 | 22 | (6.4) | 32 | (9.3) |

2. 친족관계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친족관계 밀접도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직업, 본인월평균수입, 월평균가계수입, 출생 순위, 건강 상태, 결혼 지속 년 수, 자녀 유무, 양가 부모와의 근접성, 양가 부모의 경제적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성별과 자녀 유무에 따라 양가 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다른 변인들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성별

성별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배우자 부모보다는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밀접하며, 여성에 비해 남성의 친족관계 밀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배우자 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과거에 비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정서상의 많은 변화가 뒤따랐으나 시부모와의 갈등은 오늘날에도 엄연히 존재하며, 시부모와의 입장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갈등들은 기혼여성들이 시부모와 적극적인 교류하는 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예로서, 서울시와 여성포털 이지데이에서 2009년 공동으로 실시한 21세기 新고부갈등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시부모와의 세대차이 때문에 대화를 해도 즐겁지 않다'가 29%, '잔소리 때문에 아예 대화를 피하는 편이다'가 14%로 무려 43%가 시부모와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한 것(아이비타임즈, 2009.11.06)으로 보아 많은 여성들이 시부모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성별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

| | | | | | (N=344) |
|-------|-------|---------------|---------------|---------------|----------|
| 구 분 | | 남 | 여 | 전체 | t 값 |
| | N(%) | 169 (49.1) | 175 (50.9) | 344 (100) | |
| 친부모 | M(SD) | 60.10 (10.37) | 58.23 (10.17) | 59.15 (10.30) | -1.69 |
| 배우자부모 | M(SD) | 54.91 (11.67) | 49.70 (13.85) | 52.26 (13.07) | -3.77*** |

*** p < .001

(2) 연령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령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양가 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는 남녀 모두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조사대상자의 연령대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는 배우자 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는 20대가 54.91점, 30대가 49.70점, 40대가 55.04점으로 40대가 가장 높았다.

<표 3> 연령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

| | | | | | | | (N=344) |
|-----|-------|--------------|--------------|--------------|--------------|--------------|--------------|
| 구 분 | | 남 (n=169) | | 여 (n=175) | | 전체 | |
| |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 20대 | N(%) | 13 (7.7) | | 35 (20.0) | | 48 (14.0) | |
| | M(SD) | 63.46 (9.13) | 57.08(10.45) | 57.54(10.63) | 54.29(11.09) | 62.13(8.10) | 54.91(11.67) |
| 30대 | N(%) | 119 (70.4) | | 126 (72.0) | | 245 (71.2) | |
| | M(SD) | 60.07(10.55) | 55.23(12.09) | 57.54(10.63) | 48.83(14.01) | 58.77(10.65) | 49.70(13.85) |
| 40대 | N(%) | 37 (21.9) | | 14 (8.0) | | 51 (14.8) | |
| | M(SD) | 59.03(10.17) | 52.14(10.45) | 55.93(10.00) | 46.07(16.71) | 58.18(10.12) | 55.04(10.88) |
| F 값 | | .88 | 1.45 | 2.65 | 2.70 | 2.42 | 1.59 |

(3) 교육 수준

교육 수준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 다른 교육 수준에 비해 대학원졸일 때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양가 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 양가 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는 다른 교육 수준에 비해 전문대졸일 때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전체 조사대상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는 전문대졸일 때, 배우자 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는 대학교졸일 때 수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 교육 수준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

| | | (N=344) | | | | | |
|------|-------|--------------|--------------|--------------|--------------|--------------|--------------|
| 구 분 | | 남 (n=169) | | 여 (n=175) | | 전체 | |
| |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 고졸이하 | N(%) | 20 (11.8) | | 29 (16.6) | | 49 (14.2) | |
| | M(SD) | 60.55(11.96) | 51.50(13.00) | 57.28(10.93) | 49.00(15.29) | 58.61(11.26) | 50.02(14.31) |
| 전문대졸 | N(%) | 23 (13.6) | | 49 (28.0) | | 72 (20.9) | |
| | M(SD) | 62.04(10.70) | 58.39(11.67) | 58.37(8.90) | 49.59(11.80) | 59.54(9.59) | 52.40(12.38) |
| 대학교졸 | N(%) | 102 (60.4) | | 80 (45.7) | | 182 (52.9) | |
| | M(SD) | 60.24(9.76) | 55.60(11.13) | 58.21(10.90) | 49.43(14.82) | 59.35(10.30) | 52.88(13.21) |
| 대학원졸 | N(%) | 24 (14.2) | | 17 (9.7) | | 41 (11.9) | |
| | M(SD) | 57.29(11.25) | 51.46(12.03) | 59.53(9.47) | 52.53(12.86) | 58.22(10.48) | 51.90(12.24) |
| F 값 | | .87 | 2.11 | .18 | .27 | .21 | .63 |

(4) 직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직업에 따른 양가 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는 평균 63.12점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교육직에 종사할 때 양가 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음으로

전체 조사대상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는 관리·전문직일 때 평균 61.15점, 배우자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는 교육직일 때 평균 58.57점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5> 직업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

| | | (N=344) | | | | | |
|---------|-------|--------------|--------------|--------------|--------------|--------------|--------------|
| 구분 | | 남 (n=169) | | 여 (n=175) | | 전체 | |
| |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 전업주부 | N(%) | 1 (.6) | | 63 (36.0) | | 64 (18.6) | |
| | M(SD) | 41.00(-) | 49.00(-) | 57.16(9.78) | 48.95(14.36) | 56.91(9.91) | 48.95(14.25) |
| 사무직 | N(%) | 114 (67.5) | | 70 (40.0) | | 184 (53.5) | |
| | M(SD) | 59.51(9.98) | 55.12(10.78) | 59.16(10.72) | 47.43(14.19) | 59.38(10.23) | 52.20(12.72) |
| 서비스·생산직 | N(%) | 26 (15.4) | | 14 (8.0) | | 40 (11.6) | |
| | M(SD) | 61.00(12.56) | 54.08(14.45) | 56.64(10.09) | 52.57(11.68) | 59.48(11.81) | 53.55(13.41) |
| 관리·전문직 | N(%) | 17 (10.1) | | 10 (5.7) | | 27 (7.8) | |
| | M(SD) | 63.12(9.16) | 56.41(11.45) | 57.80(12.97) | 52.40(13.00) | 61.15(10.80) | 54.93(11.96) |
| 교육직 | N(%) | 5 (3.0) | | 9 (5.1) | | 14 (4.1) | |
| | M(SD) | 61.80(10.83) | 57.80(18.00) | 59.67(9.41) | 59.00(10.52) | 60.43(9.57) | 58.57(12.97) |
| 기타 | N(%) | 6 (3.6) | | 9 (5.1) | | 15 (4.4) | |
| | M(SD) | 60.67(9.54) | 48.67(12.50) | 60.00(7.09) | 55.89(10.07) | 60.27(7.83) | 53.00(11.28) |
| F 값 | | 1.12 | .54 | .41 | 1.82 | .91 | 1.81 |

(5) 본인 월평균소득

월평균소득에 따른 양가 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는 남녀 모두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가 배우자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조사대상자의 소득이 많아질수록 배우자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것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혈족집단인 친부모보다는 인척집단인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보다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는 남성의 경우 월평균소

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 평균 61.25점, 여성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101만원 ~ 300만원일 때 평균 59.45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배우자 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는 남성의 경우 301만원 이상일 때 평균 55.42점, 여성의 경우에도 301만원 이상일 때 평균 51.88점으로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6> 본인 월평균소득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

| | | (N=344) | | | | | |
|-----------|-------|--------------|--------------|--------------|--------------|--------------|--------------|
| 구 분 | | 남 성 | | 여 성 | | 전 체 | |
| |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 100만원 이하 | N(%) | 4 (2.4) | | 62 (35.4) | | 66 (19.2) | |
| | M(SD) | 61.25(14.53) | 53.00(19.20) | 56.39(9.63) | 47.95(13.53) | 56.98(9.90) | 48.26(13.79) |
| 101~300만원 | N(%) | 99 (58.5) | | 89 (50.9) | | 188 (54.6) | |
| | M(SD) | 60.35(9.62) | 54.64(10.92) | 59.45(10.03) | 50.34(13.67) | 59.93(9.80) | 52.60(12.45) |
| 301만원 이상 | N(%) | 66 (39.1) | | 24(13.7) | | 90 (26.2) | |
| | M(SD) | 59.65(11.32) | 55.42(12.44) | 58.46(11.75) | 51.88(15.39) | 59.33(11.38) | 54.48(13.29) |
| F 값 | | .12 | .14 | .17 | .88 | 1.67 | 2.40* |

* p < .05

(6) 월평균가계수입

월평균가계수입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가계수입에서 친족관계 밀접도가 높은 수치를 보였다. 월평균가계수입에 따른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는 남성의 경우 200만원 이하일 때 평균 67.17점, 여성의 경우 201~400만원일 때 평균 59.05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배우자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는 남성의 경우 200만원 이하일 때 평균 57.83점, 여성의 경우 401만원 이상일 때 평균 58.23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표 6> 월평균가계수입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

| 구 분 | | (N=344) | | | | | |
|-----------|-------|--------------|--------------|--------------|--------------|--------------|--------------|
| | | 남 성 | | 여 성 | | 전 체 | |
| |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 200만원이하 | N(%) | 6 (3.6) | | 8 (4.6) | | 14 (4.1) | |
| | M(SD) | 67.17(8.75) | 57.83(16.61) | 57.63(10.94) | 56.75(9.18) | 61.71(10.86) | 57.21(12.32) |
| 201~400만원 | N(%) | 27 (15.9) | | 19 (10.8) | | 46 (13.3) | |
| | M(SD) | 57.59(8.95) | 51.07(11.52) | 59.05(10.84) | 53.05(12.62) | 58.20(9.68) | 51.89(11.89) |
| 401만원 이상 | N(%) | 136 (80.5) | | 148 (84.6) | | 284 (82.6) | |
| | M(SD) | 60.29(10.58) | 55.54(11.41) | 58.16(10.12) | 58.23(10.18) | 59.18(10.38) | 52.07(13.28) |
| F 값 | | 2.24 | 1.86 | .08 | 1.86 | .63 | 1.05 |

(7) 출생 순위

출생 순위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를 살펴보면, 남성의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특히 장남일 때 친족관계 밀접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부장적 사회 내에서 장남에게 부과되는 의무 내지는 책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여성의 경우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는 차녀이하일 때, 배우자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는 외동딸일 때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8> 출생순위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

| 구 분 | | (N=344) | | | | | |
|--------------------|-------|--------------|--------------|--------------|--------------|--------------|--------------|
| | | 남 (n=169) | | 여 (n=175) | | 전체 | |
| |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 장 남 또는 장 녀 | N(%) | 87 (5.15) | | 77 (44.0) | | 164(47.7) | |
| | M(SD) | 61.87(9.93) | 56.45(11.79) | 58.25(10.87) | 48.84(13.93) | 60.16(10.51) | 52.88(13.35) |
| 차남이하 또는 차녀이하 | N(%) | 74 (43.8) | | 87 (49.7) | | 161(46.8) | |
| | M(SD) | 57.86(10.92) | 53.95(11.11) | 58.63(9.37) | 50.09(13.90) | 58.28(10.09) | 51.86(12.80) |
| 외아들 또는 외동딸 | N(%) | 8 (4.7) | | 11 (6.3) | | 19 (5.5) | |
| | M(SD) | 61.50(5.32) | 47.00(12.85) | 55.00(11.71) | 52.64(13.65) | 57.74(9.90) | 40.26(13.26) |
| F 값 | | 3.15* | 2.91 | .62 | .43 | 1.56 | .48 |

* p < .05

(8) 건강 상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 상태에 따른 양가 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는 남녀 모두 대체로 건강할수록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대부분이 '보통' 이상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건강 상태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

| | | (N=344) | | | | | |
|-------|-------|--------------|--------------|--------------|--------------|--------------|--------------|
| 구 분 | | 남 (n=169) | | 여 (n=175) | | 전체 | |
| |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 건강한 편 | N(%) | 127(75.1) | | 112(64.0) | | 239(69.5) | |
| | M(SD) | 60.47(10.65) | 55.90(11.59) | 59.13(10.59) | 49.96(14.59) | 59.84(10.62) | 53.11(13.39) |
| 보통 | N(%) | 41(24.3) | | 51(29.1) | | 92(26.7) | |
| | M(SD) | 58.88(9.58) | 51.68(11.59) | 57.20(8.56) | 50.49(12.13) | 57.95(9.02) | 51.02(11.84) |
| 나쁜 편 | N(%) | 1(.6) | | 12(6.9) | | 13(3.8) | |
| | M(SD) | 63.00(-) | 61.00(-) | 54.25(11.97) | 44.00(13.45) | 54.92(11.72) | 45.31(13.71) |
| F 값 | | .40 | 2.19 | 1.63 | 1.12 | 2.28 | 2.79 |

(9) 결혼 지속 년 수

결혼 지속 년 수는 친족관계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서 남성의 경우 양가 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 모두 결혼 1년 이하일 때 가장 높아 결혼 초기일수록 친족관계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결혼 지속 년 수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경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결혼 초기에 친족과의 교류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결혼 기간과 상관없이 시가친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친족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오늘날에 들어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친정친과의 상호작용이 보다 활발해지고 지속적으로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10> 결혼 지속 년 수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

(N=344)

| 구 분 | 남 (n=169) | | 여 (n=175) | | 전체 | |
|----------------------|-----------|--------------------------|---------------|--------------|--------------|---------------------------|
|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 1년 이하 | N(%) | 20(11.8) | 19(10.9) | | 39(11.3) | |
| | M(SD) | 63.45(9.67) 60.10(10.36) | 62.00(8.71) | 58.30(9.65) | 62.74(9.12) | 57.21(10.36) |
| 1년1개월 이상 ~ 5년 이하 | N(%) | 85(50.3) | | 106(60.6) | | 191(55.5) |
| | M(SD) | 61.26(10.34) | 55.29 (11.46) | 54.16(9.70) | 50.16(12.82) | 59.62(9.91) 52.45(12.46) |
| 5년1개월 이상 ~ 10년 이하 | N(%) | 64(37.9) | | 50(28.6) | | 114(33.1) |
| | M(SD) | 57.52(10.58) | 52.77(11.94) | 56.64(11.52) | 47.04(16.72) | 57.13(10.96) 50.25(14.45) |
| F 값 | | 3.68* | 3.18* | 1.94 | 1.99 | 4.87** 4.23* |

* p < .05, ** p < .01

(10) 자녀 유무

본 연구에서 자녀 유무는 친족관계 밀접도에 유의하지 않았으나,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는 남녀 모두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배우자 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는 남성은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자녀가 없을 때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자녀가 있을 때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주된 이유는 여성이 자녀의 주양육자로서 자녀를 돌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표 11> 자녀 유무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

(N=344)

| 구 분 | 남 (n=169) | | 여 (n=175) | | 전체 | |
|-------|-----------|--------------|--------------|--------------|--------------|---------------------------|
|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 자녀 없음 | N(%) | 55 (32.5) | | 66 (37.7) | | 121 (35.2) |
| | M(SD) | 59.04(10.16) | 55.75(11.27) | 58.11(10.68) | 49.65(12.33) | 58.53(10.41) 52.42(12.20) |
| 자녀 있음 | N(%) | 114 (67.5) | | 109 (62.3) | | 223 (64.8) |
| | M(SD) | 60.61(10.47) | 54.40(11.89) | 58.30 (9.91) | 49.73(14.75) | 59.48(10.24) 52.17(13.55) |
| F 값 | | -.93 | .66 | -.12 | -.04 | -.82 .17 |

(11) 부모와의 근접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양가 부모와의 근접성에 따라 친족관계 밀접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동네 또는 같은 시(도)/구와 같이 비교적 근거리에 거주할 때 양가 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배우자부모에 비해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가 보다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친부모의 경우는 동거중일 때 친족관계 밀접도가 가장 높은 반면 배우자부모의 경우는 같은 동네에 거주할 때 친족관계 밀접도가 가장 높았다. 즉, 지리적 접근성은 선행 연구들(이광자, 1988; 김성희, 1992; 조정문, 1997; 박시라, 1999)에서 밝힌 바와 같이 친족과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부모와의 근접성에 따른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

| 구 분 | | (N=344) | | | | | |
|-----------|-------|--------------|--------------|--------------|--------------|--------------|--------------|
| | | 남 (n=169) | | 여 (n=175) | | 전체 | |
| |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 동거 | N(%) | 17(10.1) | 3(1.8) | 10(5.7) | 18(10.3) | 27(7.8) | 21(6.1) |
| | M(SD) | 67.00 (9.17) | 69.67(17.93) | 58.90(9.38) | 53.61(12.23) | 64.00(9.90) | 55.90(13.87) |
| 같은 동네 | N(%) | 23(13.6) | 21(12.4) | 29 (16.6) | 10 (5.7) | 52(15.1) | 31(9.0) |
| | M(SD) | 63.30 (8.09) | 58.57(10.86) | 61.59(7.10) | 58.30(11.52) | 62.35(7.53) | 58.48(10.88) |
| 같은 시(도)/구 | N(%) | 19(11.2) | 20(161.8) | 19(10.9) | 13(7.4) | 38(11.0) | 33(9.6) |
| | M(SD) | 59.63(10.93) | 55.45(12.78) | 62.11(11.62) | 50.77(17.12) | 60.87(11.20) | 53.61(14.57) |
| 같은 시(도) | N(%) | 20(11.8) | 21 (12.4) | 20(11.4) | 20(11.4) | 40(11.6) | 41 (11.9) |
| | M(SD) | 60.50(10.95) | 55.39(13.33) | 54.30(12.14) | 44.60(12.24) | 57.40(11.84) | 50.07(13.75) |
| 수도권 지역 | N(%) | 44(26.0) | 58 (34.3) | 61(34.9) | 61(34.9) | 105(30.5) | 119(34.6) |
| | M(SD) | 57.30(10.48) | 52.93(8.87) | 57.16(8.53) | 48.95(12.57) | 57.22(9.35) | 50.89(11.06) |
| 기타 지역 | N(%) | 46(27.2) | 46(27.2) | 36(20.6) | 53(30.3) | 82(23.8) | 99(28.8) |
| | M(SD) | 58.65(10.14) | 54.35(12.97) | 57.28(12.19) | 49.28(15.33) | 58.05(11.03) | 51.64(14.44) |
| F 값 | | 2.94 | 1.78 | 2.04 | 1.69 | 3.71** | 2.39* |

* p < .05, ** p < .01

(12) 부모의 경제적 수준

친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와 전체 조사대상자에 한하여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경우 친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인식할 때보다 '중'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인식할 때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박시라(1999)가 자녀양육기 기혼남녀의 친족유대에 관한 연구에서 언급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기능적 유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여성에 비해 남성이 경제적 조건들을 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여성의 경우 친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계지향적인 여성의 특성상 친족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친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같은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우자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배우자 부모(시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중상'으로 인식하는 경우 친부모와 배우자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낮게 인식할 때보다 높게 인식할 때 양가 부모와의 친족관계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친부모보다는 배우자 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에 보다 유의하였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배우자 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배우자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는 전반적으로 친부모의 경제적 수준보다 배우자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배우자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배우자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는 물론 친부모와의 밀접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을 많이 보유할수록 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한층 친밀한 친족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혈족 관계인 친부모보다는 인척 관계인 배우자의 부모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13> 친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

(N=344)

| 구 분 | 남 (n=169) | | 여 (n=175) | | 전체 | |
|-----|-----------|--------------|--------------|--------------|--------------|--------------|
|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 상 | N(%) | 5 (3.0) | 6 (3.4) | | 11 (3.2) | |
| | M(SD) | 52.20(13.59) | 50.20(13.63) | 51.00(4.60) | 48.67(7.31) | 51.55(9.21) |
| 중상 | N(%) | 27 (16.0) | 50 (28.6) | | 77 (22.4) | |
| | M(SD) | 62.44(10.58) | 52.96(13.09) | 59.32(12.14) | 50.40(14.19) | 60.42(11.64) |
| 중 | N(%) | 80 (47.3) | 64 (36.6) | | 144 (41.9) | |
| | M(SD) | 61.40(8.38) | 56.55(10.23) | 59.63(8.27) | 50.69(13.61) | 60.61(8.35) |
| 중하 | N(%) | 43 (25.4) | 47 (26.9) | | 90 (26.2) | |
| | M(SD) | 58.98(11.94) | 55.12(12.50) | 56.94(10.47) | 49.38(13.72) | 57.91(11.18) |
| 하 | N(%) | 14 (8.3) | 8 (4.6) | | 22 (6.4) | |
| | M(SD) | 54.43(11.65) | 50.29(12.82) | 53.25(9.08) | 40.13(17.28) | 54.00(10.58) |
| F 값 | 2.67* | 1.35 | 1.91 | 1.09 | 4.38** | 1.89 |

* p < .05, ** p < .01

<표 14> 배우자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

(N=344)

| 구 분 | 남 (n=169) | | 여 (n=175) | | 전체 | |
|-----|-----------|--------------|--------------|--------------|--------------|--------------|
|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 상 | N(%) | 10 (5.9) | 8 (4.6) | | 18 (5.2) | |
| | M(SD) | 56.60(14.12) | 49.30(15.23) | 53.88(6.69) | 49.50(10.43) | 55.39(11.22) |
| 중상 | N(%) | 22 (13.0) | 35 (20.0) | | 57 (16.6) | |
| | M(SD) | 63.00(11.10) | 57.73(11.33) | 61.34(11.85) | 53.71(14.01) | 61.98(11.50) |
| 중 | N(%) | 87 (51.5) | 71 (40.6) | | 158 (45.9) | |
| | M(SD) | 60.90(8.97) | 57.20(9.98) | 59.42(8.31) | 52.46(11.86) | 60.23(8.68) |
| 중하 | N(%) | 39 (23.1) | 40 (22.9) | | 79 (23.0) | |
| | M(SD) | 57.31(10.63) | 51.82(11.81) | 57.50(9.14) | 46.75(13.72) | 57.41(9.84) |
| 하 | N(%) | 11 (6.5) | 21 (12.0) | | 32 (9.3) | |
| | M(SD) | 61.09(13.35) | 47.18(15.05) | 52.05(13.09) | 39.38(15.93) | 55.16(13.68) |
| F 값 | 1.60 | 3.87** | 3.63** | 5.28*** | 4.02** | 9.58*** |

** p < .01, *** p < .001

3. 결혼만족도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결혼만족도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일치된 결과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중 성별, 취업상태(부인의 취업여부를 포함), 직업, 소득, 교육 수준, 연령, 자녀요인 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박태은, 1983; 이미숙, 1990; 이미숙, 1997; 김수진,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1) 성별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상당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결혼만족도는 평균 16.18점인데 반해 여성은 14.60점으로 나타나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비해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최규련, 1987; 이미숙, 1997; 이정은, 1999). 또한, 통계청 2010년 사회조사 자료에서 제시된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에서 기혼남성의 70.6%가 배우자에게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기혼여성은 60.8%만이 배우자에게 만족한다고 응답한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15> 성별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N=344) | | | | |
|---------|--------------|--------------|--------------|----------|
| 구 분 | 남 | 여 | 전체 | t 값 |
| N(%) | 169 (49.1) | 175 (50.9) | 344 (100) | |
| M(SD) | 16.18 (3.18) | 14.60 (4.37) | 15.38 (3.91) | -3.85*** |

*** p < .001

(2) 연령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본인 및 배우자의 연령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본인 연령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서도 다소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본인 연령 및 배우자의 연령이 30대일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결혼만족도는 본인 연령 및 배우자의 연령이 20대 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본인 연령만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손연정·유문숙(2008)의 기혼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만족도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연령이 낮아질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남성의 경우 배우자의 연령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여성과 달리 남성은 배우자의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배우자의 연령이 결혼만족도에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40대에 비해 30대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16> 연령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 | (N=344) | | | | | |
|-----|-------|-------------|-------------|-------------|-------------|-------------|-------------|
| 구 분 | | 남 (n=169) | | 여 (n=175) | | 전체 | |
| | | 본인 | 배우자 | 본인 | 배우자 | 본인 | 배우자 |
| 20대 | N(%) | 13 (7.7) | 27 (16.0) | 35 (20.0) | 19 (10.9) | 48 (14.0) | 46 (13.4) |
| | M(SD) | 14.85(4.34) | 15.52(3.72) | 16.54(3.19) | 15.11(3.41) | 16.08(3.67) | 15.35(3.56) |
| 30대 | N(%) | 119 (70.4) | 132 (78.1) | 126 (72.0) | 122 (69.7) | 245 (71.2) | 254 (73.8) |
| | M(SD) | 16.62(2.96) | 16.47(2.94) | 14.21(4.17) | 14.97(4.18) | 15.38(3.82) | 15.75(3.66) |
| 40대 | N(%) | 37 (21.9) | 14 (8.0) | 14 (8.0) | 34 (19.4) | 51 (14.8) | 44(12.8) |
| | M(SD) | 15.24(3.18) | 14.20(4.13) | 13.29(6.96) | 13.00(5.19) | 14.71(4.54) | 13.27(4.95) |
| F 값 | | 4.02* | 3.14* | 4.80** | 2.90 | 1.54 | 7.82*** |

* p < .05, ** p < .01, *** p < .001

(3) 교육 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전체 조사대상자를 기준으로 본인의 교육 수준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인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도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박태온, 1983; 유명주, 1986; 최규련, 1987; 오경희, 1997). 그러나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사대상자의 85.3%가 교육을 제공받을 기회가 많았던 20-30대로 '대학교졸 이상'의 비교적 높은 교육 수준을 보이고 있어 변별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17> 교육 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구 분 | (N=344) | | | | | | |
|------|-----------|-------------|-------------|-------------|-------------|-------------|-------------|
| | 남 (n=169) | | 여 (n=175) | | 전체 | | |
| | 본인 | 배우자 | 본인 | 배우자 | 본인 | 배우자 | |
| 고졸이하 | N(%) | 20(11.8) | 29(17.2) | 29 (16.6) | 25(14.3) | 49 (14.2) | 54(15.7) |
| | M(SD) | 14.95(3.82) | 15.45(3.59) | 13.45(4.88) | 13.16(5.02) | 14.06(4.50) | 14.29(4.42) |
| 전문대졸 | N(%) | 23 (13.6) | 38(22.5) | 49 (28.0) | 36(20.6) | 72 (20.9) | 74(21.5) |
| | M(SD) | 15.70(3.28) | 16.18(3.32) | 14.80(4.13) | 14.47(3.40) | 15.08(3.88) | 15.35(3.45) |
| 대학교졸 | N(%) | 102(60.4) | 85(50.3) | 80 (45.7) | 96(54.9) | 182 (52.9) | 181(52.6) |
| | M(SD) | 16.46(3.01) | 16.35(3.02) | 14.50(4.45) | 14.60(4.46) | 15.60(3.18) | 15.43(3.94) |
| 대학원졸 | N(%) | 24(14.2) | 17(10.1) | 17 (9.7) | 18(10.3) | 41 (11.9) | 35(10.2) |
| | M(SD) | 16.50(3.16) | 16.59(3.02) | 17.47(3.30) | 16.83(4.05) | 16.49(3.91) | 16.71(3.54) |
| F 값 | | 1.53 | .68 | 1.78 | 2.55 | 3.35* | 2.56 |

* p < .05

(4) 직업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본인 및 배우자의 직업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직업이 결혼만족도에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의 직업이 매우 유의하였는데, 조혜선(2003)은 결혼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남성의 경우 직업만족이 결혼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남성의 결혼만족도는 교육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

가 관리·전문직, 전업주부일 때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결혼만족도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교육직에 종사하는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전체 조사대상자에게서 본인 및 배우자의 직업이 결혼만족도에 다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본인의 직업이 교육직인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무직일 때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배우자의 직업에 따른 결혼만족도가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전업주부일 때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관리·전문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의 직업이 전업주부인 경우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여성이 직업을 가진 경우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박태온, 1983). 한편 배우자의 직업이 전업주부일 때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부인의 취업여부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이미숙, 1997)와 일치하는 것이다.

<표 18> 직업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구 분 | (N=344) | | | | | | |
|-------------|-----------|-------------|-------------|-------------|-------------|-------------|-------------|
| | 남 (n=169) | | 여 (n=175) | | 전체 | | |
| | 본인 | 배우자 | 본인 | 배우자 | 본인 | 배우자 | |
| 전업 주부 | N(%) | 1(.6) | 68(40.2) | 63(36.0) | 3(1.7) | 64(18.6) | 71(18.6) |
| | M(SD) | 3.00(-) | 16.60(3.17) | 14.16(4.90) | .33(.58) | 13.98(5.05) | 16.30(3.44) |
| 사무직 | N(%) | 114(67.5) | 59(34.9) | 70(40.0) | 86(49.1) | 184(53.5) | 145(53.5) |
| | M(SD) | 16.31(2.98) | 15.92(3.20) | 14.74(4.32) | 15.17(4.00) | 15.71(3.62) | 14.48(3.70) |
| 서비스· 생산직 | N(%) | 26(15.4) | 10(5.9) | 14(8.0) | 50(28.6) | 40(11.6) | 60(11.6) |
| | M(SD) | 16.31(2.96) | 13.80(2.53) | 13.29(3.87) | 13.94(4.94) | 15.25(3.57) | 13.92(4.61) |
| 관리· 전문직 | N(%) | 17(10.1) | 11(6.5) | 10(5.7) | 23(13.1) | 27(7.8) | 34(7.8) |
| | M(SD) | 15.29(2.52) | 17.91(1.81) | 15.70(3.27) | 14.70(4.02) | 15.44(2.76) | 15.74(3.75) |
| 교육직 | N(%) | 5(3.0) | 16(9.5) | 9(5.1) | 5(2.9) | 14(4.1) | 21(4.1) |
| | M(SD) | 18.80(2.17) | 16.13(2.92) | 16.78(2.95) | 12.00(5.25) | 17.50(2.25) | 15.14(3.89) |
| 기타 | N(%) | 6(3.6) | 5(3.0) | 9(5.1) | 8(4.6) | 15(4.4) | 13(4.4) |
| | M(SD) | 15.83(5.19) | 14.80(5.07) | 15.22(4.02) | 15.88(4.26) | 15.47(4.36) | 15.46(4.41) |
| F 값 | | 4.95*** | 2.37* | 1.01 | 1.94 | 2.80* | 2.61* |

* p < .05, *** p < .001

(5) 월평균소득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월평균소득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남녀 모두 101~300만원 사이일 때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입과 결혼만족도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유은희, 1975; 유영주, 1979; 조정문, 1995).

<표 19> 본인 월평균소득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 | (N=344) | | |
|-----------|-------|-------------|-------------|-------------|
| 구 분 | | 남 성 | 여 성 | 전 체 |
| 100만원 이하 | N(%) | 4 (2.4) | 62 (35.4) | 66 (19.2) |
| | M(SD) | 13.25(7.50) | 14.42(4.87) | 14.35(4.99) |
| 101~300만원 | N(%) | 99 (58.5) | 89 (50.9) | 188 (54.6) |
| | M(SD) | 16.28(2.72) | 14.73(4.05) | 15.55(3.49) |
| 301만원 이상 | N(%) | 66 (39.1) | 24(13.7) | 90 (26.2) |
| | M(SD) | 16.21(3.45) | 14.58(4.33) | 15.38(2.91) |
| F 값 | | .47 | .09 | 2.97 |

(6) 월평균가계수입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평균가계수입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수입이 낮을수록, 여성은 수입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은 수치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의 80%이상이 월평균가계수입 '401만원 이상'에 해당되어 월평균가계수입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표 20> 월평균가계수입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 | (N=344) | | |
|-----------|-------|-------------|-------------|-------------|
| 구 분 | | 남 성 | 여 성 | 전 체 |
| 200만원 이하 | N(%) | 6 (3.6) | 8 (4.6) | 14 (4.1) |
| | M(SD) | 18.17(2.71) | 12.25(3.69) | 14.79(4.41) |
| 201~400만원 | N(%) | 27 (15.9) | 19 (10.8) | 46 (13.3) |
| | M(SD) | 16.19(2.66) | 13.58(5.03) | 15.11(3.99) |
| 401만원 이상 | N(%) | 136 (80.5) | 148 (84.6) | 284 (82.6) |
| | M(SD) | 16.10(3.29) | 14.86(4.29) | 15.45(3.88) |
| F 값 | | 1.22 | 1.95 | .32 |

(7) 출생 순위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출생 순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본인이 장남일 때 평균 16.43점, 배우자가 장녀일 때 16.49점으로 다른 출생 순위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와 달리 여성의 결혼만족도는 본인이 외동딸일 때 평균 14.82점, 배우자가 차남이하일 때 14.98점으로 다른 출생순위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21> 출생순위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 | (N=344) | | | | | |
|--------------------|-------|-------------|-------------|-------------|-------------|-------------|-------------|
| 구 분 | | 남 (n=169) | | 여 (n=175) | | 전체 | |
| | | 본인 | 배우자 | 본인 | 배우자 | 본인 | 배우자 |
| 장 남 또는 장 녀 | N(%) | 87(5.15) | 61(26.1) | 77(44.0) | 70(40.0) | 164(47.7) | 131(38.1) |
| | M(SD) | 16.43(3.26) | 16.49(3.11) | 14.71(4.70) | 14.44(4.88) | 15.92(4.12) | 15.34(4.28) |
| 차남이하 또는 차녀이하 | N(%) | 74(43.8) | 103(60.9) | 87(49.7) | 85(48.6) | 61(46.8) | 188(54.7) |
| | M(SD) | 16.12(3.02) | 16.08(3.17) | 14.47(4.16) | 14.98(4.12) | 15.23(3.76) | 15.58(3.66) |
| 외아들 또는 외동딸 | N(%) | 8(4.7) | 5(3.0) | 11(6.3) | 25(11.4) | 19(5.5) | 25(7.3) |
| | M(SD) | 14.13(2.10) | 14.60(4.39) | 14.82(3.95) | 13.90(3.45) | 14.53(3.24) | 14.04(3.57) |
| F 값 | | 1.96 | .96 | .07 | .69 | .89 | 1.73 |

(8) 건강 상태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결혼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 상태는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하지 않았으며 여성의 결혼만족도에는 상당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결혼만족도는 건강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건강 상태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배우자의 건강 상태보다 특히 본인의 건강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결혼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박태운, 1983; 강기연, 1995; 현경자, 2005).

<표 22> 건강 상태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 | (N=344) | | | | | |
|-----|-------|-------------|-------------|-------------|-------------|-------------|-------------|
| 구 분 | | 남 (n=169) | | 여 (n=175) | | 전체 | |
| | | 본인 | 배우자 | 본인 | 배우자 | 본인 | 배우자 |
| 건강함 | N(%) | 127(75.1) | 131(77.5) | 112(64.0) | 127(72.6) | 239(69.5) | 258(75.0) |
| | M(SD) | 16.31(3.26) | 16.21(3.22) | 15.47(3.91) | 15.16(4.24) | 15.92(3.60) | 15.65(3.79) |
| 보통 | N(%) | 41(24.3) | 33(19.5) | 51(29.1) | 45(25.7) | 92(26.7) | 78(22.7) |
| | M(SD) | 15.90(2.91) | 16.52(2.96) | 12.98(4.54) | 13.56(4.40) | 14.28(4.15) | 14.81(4.11) |
| 나쁨 | N(%) | 1(.6) | 5(3.0) | 12(6.9) | 3(6.9) | 13(3.8) | 8(2.3) |
| | M(SD) | 12.00(-) | 13.20(2.68) | 13.33(5.68) | 10.67(6.66) | 13.23(5.45) | 12.25(4.30) |
| F 값 | | 1.12 | 2.42 | 6.65** | 3.30* | 8.17*** | 4.07* |

* p < .05, ** p < .01, *** p < .001

(9) 결혼 지속 년 수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결혼 지속 년 수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1년 이하일 때 높고, 여성의 경우 1년 1개월 이상~5년 이하일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여성에게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경우 결혼 지속 년 수가 5년 이

상일 때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김민녀(2006)가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양육기에는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할애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결혼생활 전반적으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예로, 2009년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가정관리 및 가족보살피기에 소비하는 시간은 맞벌이부부의 경우 여성은 평균 3시간 20분인데 반해 남성은 37분에 불과하며, 비맞벌이의 경우 여성은 6시간 18분인데 반해 남성은 맞벌이 경우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여성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3> 결혼 지속 년 수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구 분 | | (N=344) | | |
|----------------------|-------|--------------|--------------|--------------|
| | | 남 (n=169) | 여 (n=175) | 전체 |
| 1년 이하 | N(%) | 20(11.8) | 19(10.9) | 39(11.3) |
| | M(SD) | 16.90 (2.40) | 15.21 (3.10) | 16.08 (2.86) |
| 1년1개월 이상 ~ 5년 이하 | N(%) | 85(50.3) | 106(60.6) | 191(55.5) |
| | M(SD) | 15.96 (3.23) | 15.24 (4.08) | 15.56 (3.73) |
| 5년1개월 이상 ~ 10년 이하 | N(%) | 64(37.9) | 50(28.6) | 114(33.1) |
| | M(SD) | 16.25 (3.34) | 12.02 (5.01) | 14.84 (4.44) |
| F 값 | | .72 | 4.78* | 1.95 |

* p < .05

(10) 자녀 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자녀 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자녀가 있을 때보다 자녀가 없을 때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미숙, 1997; 오경희, 1997; 김미령, 2009), 이러한 차이는 남성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이러한 차이는 상당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전히 자녀양육의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있어 자녀는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24> 자녀 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구 분 | (N=344) | | | | | |
|-------|-----------|-------------|-----------|-------------|-----------|-------------|
| | 남 성 | | 여 성 | | 전 체 | |
| | N(%) | M(SD) | N(%) | M(SD) | N(%) | M(SD) |
| 자녀 없음 | 55(32.5) | 16.45(3.32) | 66(37.7) | 15.92(3.74) | 121(35.2) | 16.17(3.55) |
| 자녀 있음 | 114(67.5) | 16.05(3.12) | 109(62.3) | 13.80(4.54) | 223(64.8) | 14.95(4.03) |
| t 값 | .77 | | 3.20** | | 2.78** | |

** p < .01

(11) 부모와의 근접성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부모와의 근접성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 모두 친부모 또는 배우자부모와 동거할 때보다 동거하지 않을 때 결혼만족도가 수치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모와의 근접성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5> 부모와의 근접성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구 분 | (N=344) | | | | | | |
|----------|---------|-------------|-------------|-------------|-------------|-------------|-------------|
| | | 남 (n=169) | | 여 (n=175) | | 전 체 | |
| |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 동거 | N(%) | 17(10.1) | 3(1.8) | 10(5.7) | 18(10.3) | 27(7.8) | 21(6.1) |
| | M(SD) | 15.12(2.14) | 11.67(8.08) | 14.00(2.83) | 14.44(4.54) | 14.70(3.03) | 14.05(5.01) |
| 같은 동네 | N(%) | 23(13.6) | 21(12.4) | 29(16.6) | 10(5.7) | 52(15.1) | 31(9.0) |
| | M(SD) | 15.96(3.05) | 16.14(2.90) | 14.28(5.17) | 13.90(3.60) | 15.02(4.40) | 15.42(3.26) |
| 같은 시(도)구 | N(%) | 19(11.2) | 20(161.8) | 19(10.9) | 13(7.4) | 38(11.0) | 33(9.6) |
| | M(SD) | 15.00(4.14) | 16.00(3.29) | 15.58(3.10) | 16.08(3.64) | 15.29(3.62) | 16.03(3.37) |
| 같은 시(도) | N(%) | 20(11.8) | 21(12.4) | 20(11.4) | 20(11.4) | 40(11.6) | 41(11.9) |
| | M(SD) | 16.25(2.90) | 16.38(2.82) | 14.20(4.91) | 13.25(4.68) | 15.23(4.11) | 14.85(4.11) |
| 수도권 지역 | N(%) | 44(26.0) | 58 (34.3) | 61(34.9) | 61(34.9) | 105(30.5) | 119(34.6) |
| | M(SD) | 16.41(3.42) | 16.12(3.35) | 14.03(4.75) | 14.44(4.58) | 15.03(4.39) | 15.26(4.09) |
| 기타 지역 | N(%) | 46(27.2) | 46 (27.2) | 36(20.6) | 53(30.3) | 82(23.8) | 99(28.8) |
| | M(SD) | 16.93(2.56) | 16.57(2.71) | 15.69(3.50) | 15.11(4.26) | 16.39(3.05) | 15.79(3.68) |
| F 값 | | 1.51 | 1.39 | .95 | .89 | 1.54 | 1.06 |

(12)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친부모와 배우자 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중상'으로 인식할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나, 친부모에 대해서만 다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양가 부모의 경제적 수준 모두 결혼만족도에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표 26>을 살펴보면, 대체로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중'에 가까울 때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반드시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26>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 | (N=344) | | | | | |
|-----|-------|-------------|-------------|-------------|-------------|-------------|-------------|
| 구 분 | | 남 (n=169) | | 여 (n=175) | | 전체 | |
| |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친부모 | 배우자부모 |
| 상 | N(%) | 5 (3.0) | 10(5.9) | 6(3.4) | 8(4.6) | 11(3.2) | 18(5.2) |
| | M(SD) | 12.00(6.00) | 14.90(5.28) | 16.50(3.62) | 15.63(2.93) | 14.45(5.15) | 15.22(4.29) |
| 중상 | N(%) | 27 (16.0) | 22(13.0) | 50(28.6) | 35(20.0) | 77(22.4) | 57(16.6) |
| | M(SD) | 16.48(3.08) | 16.82(3.03) | 14.94(4.81) | 15.17(4.73) | 15.48(4.33) | 15.81(4.21) |
| 중 | N(%) | 80 (47.3) | 87(51.5) | 64(36.6) | 71(40.6) | 144(41.9) | 158(45.9) |
| | M(SD) | 16.45(2.90) | 16.15(2.90) | 14.78(4.36) | 14.79(4.28) | 15.71(3.70) | 15.54(3.64) |
| 중하 | N(%) | 43 (25.4) | 39(23.1) | 47(26.9) | 40(22.9) | 90(26.2) | 79(23.0) |
| | M(SD) | 16.19(3.22) | 16.46(3.09) | 13.66(3.76) | 13.63(4.14) | 14.87(3.72) | 15.03(3.91) |
| 하 | N(%) | 14 (8.3) | 11(6.5) | 8(4.6) | 21(12.0) | 22(6.4) | 32(9.3) |
| | M(SD) | 15.57(2.93) | 15.35(3.72) | 15.13(5.41) | 14.48(4.96) | 15.41(3.88) | 14.78(4.53) |
| F 값 | | 2.58* | 88 | .96 | .79 | 2.80* | .59 |

* p < .05

2) 부부 특성과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성역할태도, 성만족도, 의사결정권, 네 개 영역을 모두 합산한 전반적인 부부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 성만족도, 전반적인 부부 특성은 결혼만족도에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히 의사소통과 성만족도는 남녀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도 높게 나타나 부부간에 활발한 의사소통과 성적 관계에 대한 만족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성역할태도는 여성의 경우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조정문(1999)이 결혼생활의 공평성 인지와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결혼생활에서 공평성 인지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결혼만족도와 보다 밀접하다고 밝힌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의사결정권의 경우 남녀 모두 결혼만족도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자들의 의사결정권은 대체로 중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표 28> 부부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 | (N=344) | | | | | |
|-----------------------|--------|----------------|-----------------|----------------|-----------------|----------------|-----------------|
| 구 분 | | 남 성 (n=169) | | 여 성 (n=175) | | 전 체 (N=344) | |
| | | N(%) | M(SD) | N(%) | M(SD) | N(%) | M(SD) |
| 의 사 소 통 | 1~5점 | - | - | 6 (3.4) | 4.83 (2.48) | 6 (1.7) | 4.83 (2.48) |
| | 6~10점 | 63 (37.3) | 14.14 (3.05) | 74 (42.3) | 12.46 (4.06) | 137 (39.8) | 12.23 (3.72) |
| | 11~15점 | 106 (62.7) | 17.40 (2.60) | 95 (54.3) | 16.88 (2.69) | 201 (58.4) | 17.15 (2.65) |
| | F 값 | 54.35*** | | 63.13*** | | 99.44*** | |
| 성 역 할 태 도 | 1~5점 | 5 (3.0) | 15.80 (4.44) | 2 (1.1) | 5.50 (3.54) | 7 (2.0) | 12.86 (6.36) |
| | 6~10점 | 107 (63.3) | 15.81 (2.90) | 79 (45.1) | 15.11 (3.81) | 186 (54.1) | 15.52 (3.32) |
| | 11~15점 | 57 (33.7) | 16.91 (3.51) | 95 (53.7) | 14.36 (4.62) | 151 (43.9) | 15.32 (4.40) |
| | F 값 | 2.29 | | 5.27** | | 1.59 | |

<표 28> 계속

| | | | | | | | |
|-----------------------|--------|---------------|-----------------|---------------|-----------------|---------------|-----------------|
| 성 만 족 도 | 1~5점 | 6 (3.6) | 13.17 (3.37) | 9 (5.1) | 6.78 (3.53) | 15 (4.4) | 9.33 (4.66) |
| | 6~10점 | 111 (65.7) | 15.59 (3.00) | 111 (63.4) | 13.93 (3.98) | 222 (64.5) | 14.76 (3.61) |
| | 11~15점 | 52 (30.8) | 17.81 (2.88) | 55 (31.4) | 17.24 (3.04) | 107 (31.1) | 17.51 (2.97) |
| F 값 | | 13.05*** | | 36.12*** | | 46.42*** | |
| 의 사 결 정 권 | 6~10점 | 116 (68.6) | 15.91 (3.02) | 111 (63.4) | 14.37 (4.35) | 227 (66.0) | 15.15 (3.80) |
| | 11~15점 | 53 (30.8) | 16.79 (3.47) | 64 (36.6) | 15.00 (4.41) | 117 (34.0) | 15.81 (4.09) |
| | F 값 | 2.86 | | .84 | | 2.19 | |
| 부 부 특 성 | 16~30점 | 3 (1.8) | 12.67 (4.73) | 6 (3.4) | 7.33 (5.39) | 9 (2.6) | 9.11 (5.56) |
| | 31~45점 | 141 (83.4) | 15.84 (2.93) | 130 (74.3) | 14.00 (4.06) | 271 (78.8) | 14.96 (3.63) |
| | 46~60점 | 25 (14.8) | 18.56 (3.28) | 39 (22.3) | 17.72 (2.86) | 64 (18.6) | 18.05 (3.03) |
| F 값 | | 10.75*** | | 24.74*** | | 33.35*** | |

* p < .05, ** p < .01, *** p < .001

3) 친족관계 밀접도와 결혼만족도

(1)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와 결혼만족도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남성의 경우 친교적 관계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정서적 관계 일상적 관계, 전반적인 친족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정서적 관계와 일상적 관계가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깊은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가정-일을 양립해야 하는 현실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 결혼 10년 이내의 여성들이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들의 정서적 지지와 일상적 도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일상적

도움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조사 참여나 가족모임과 같은 친교적 관계에 치중하기 때문에, 친교적 관계가 밀접할수록 결혼만족도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친부모와의 경제적 관계는 남녀 모두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부모로부터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하여 반드시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니며, 경제적 도움만으로 결혼만족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28>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 | | (N=344) | | | | | |
|-----------------------|--------|-------------|-------------|-------------|-------------|-------------|-------------|
| 구 분 | | 남 성 (n=169) | | 여 성 (n=175) | | 전 체 (n=344) | |
| | | N(%) | M(SD) | N(%) | M(SD) | N(%) | M(SD) |
| 정 서 적 관 계 | 1~5점 | - | - | 3(1.7) | 19.00(1.73) | 3(.9) | 19.00(1.73) |
| | 6~10점 | 11(6.5) | 15.36(5.32) | 11(6.3) | 13.55(4.28) | 22(6.4) | 14.45(4.80) |
| | 11~15점 | 38(22.5) | 16.34(2.79) | 48(27.4) | 12.77(5.18) | 86(25.0) | 14.35(4.63) |
| | 16~20점 | 92(54.4) | 15.92(3.16) | 79(45.1) | 15.04(3.64) | 171(49.7) | 15.51(3.41) |
| | 21~25점 | 28(16.6) | 17.14(2.62) | 34(19.4) | 16.12(3.96) | 62(18.0) | 16.58(3.43) |
| F 값 | | 1.33 | | 4.59** | | 4.10** | |
| 일 상 적 관 계 | 1~5점 | - | - | 1(.6) | 18.00(-) | 1(.3) | 18.00(-) |
| | 6~10점 | 5(3.0) | 13.80(6.91) | 13(7.4) | 11.38(5.25) | 18(5.2) | 12.06(5.65) |
| | 11~15점 | 78(46.2) | 15.91(2.91) | 81(46.3) | 14.57(4.28) | 159(46.2) | 15.23(3.72) |
| | 16~20점 | 86(50.9) | 16.57(3.10) | 80(45.7) | 15.11(4.15) | 166(48.3) | 15.38(3.70) |
| F 값 | | 2.36 | | 3.02* | | 5.65** | |
| 경 제 적 관 계 | 1~5점 | 8(4.7) | 17.63(2.97) | 8(4.6) | 12.28(5.66) | 16(4.7) | 15.00(5.14) |
| | 6~10점 | 21(12.4) | 17.05(2.82) | 37(21.1) | 13.70(5.48) | 58(16.9) | 14.91(4.94) |
| | 11~15점 | 76(45.0) | 15.87(3.25) | 78(44.6) | 14.79(4.24) | 154(44.8) | 15.32(3.81) |
| | 16~20점 | 52(30.8) | 15.96(3.56) | 49(28.0) | 15.12(3.21) | 101(29.4) | 15.55(3.30) |
| | 21~25점 | 12(7.1) | 16.67(2.57) | 3(1.7) | 18.00(3.00) | 15(4.4) | 16.93(2.60) |
| F 값 | | 1.12 | | 1.60 | | .89 | |

<표 28> 계속

| | | | | | | | |
|----------------------------|--------|-----------|-------------|-----------|-------------|-----------|-------------|
| 친 교 적 관 계 | 1~5점 | 1(.6) | 12.00(-) | 1(.6) | 16.00(-) | 2(.6) | 14.00(2.83) |
| | 6~10점 | 17(10.1) | 15.65(4.20) | 27(15.4) | 13.89(4.29) | 44(12.8) | 14.57(4.29) |
| | 11~15점 | 116(68.6) | 15.93(3.01) | 113(64.6) | 14.24(4.28) | 229(66.6) | 15.10(3.78) |
| | 16~20점 | 35(20.7) | 17.40(2.96) | 34(19.4) | 16.32(4.47) | 69(20.1) | 16.87(3.79) |
| F 값 | | 2.77* | | 2.35 | | 4.60** | |
| 전 체 친 족 관 계 | 16~30점 | 2(1.2) | 16.50(6.36) | 2(1.1) | 18.00(-) | 4(1.2) | 17.25(3.78) |
| | 31~45점 | 16(9.5) | 15.69(4.00) | 15(8.6) | 12.47(4.91) | 31(9.0) | 14.13(4.68) |
| | 46~60점 | 66(39.1) | 16.14(3.20) | 78(44.6) | 13.62(4.78) | 144(41.9) | 14.77(4.31) |
| | 61~75점 | 75(44.4) | 15.97(2.99) | 75(42.9) | 15.69(3.45) | 150(43.6) | 15.83(3.21) |
| | 76~90점 | 10(5.9) | 18.80(1.87) | 5(2.9) | 18.60(1.34) | 15(4.4) | 18.73(1.67) |
| F 값 | | 1.92 | | 4.79** | | 5.43*** | |

* p < .05, ** p < .01, *** p < .001

(2) 배우자 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와 결혼만족도

배우자 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남성의 경우 친교적 관계가 상당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교적 관계가 밀접할수록 결혼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배우자 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정서적 관계만이 다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우 시부모와의 관계는 친부모에 비해 불편한 관계 내지는 갈등 상황에 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부모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는다 하여 결혼만족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체 조사대상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관계, 일상적 관계, 친교적 관계가 밀접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부모와의 경제적 관계 밀접도는 결혼만족도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배우자 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N=344)

| 구 분 | 남 성 (n=169) | | 여 성 (n=175) | | 전 체 (n=344) | | |
|----------------------------|-------------|-----------|-------------|----------|-------------|-----------|-------------|
| | N(%) | M(SD) | N(%) | M(SD) | N(%) | M(SD) | |
| 정 서 적 관 계 | 1~5점 | 3(1.8) | 16.00(4.58) | 16(9.1) | 12.63(5.39) | 19(5.5) | 13.14(5.31) |
| | 6~10점 | 18(10.7) | 14.94(3.19) | 32(18.3) | 13.84(4.94) | 50(14.5) | 14.24(4.39) |
| | 11~15점 | 61(36.7) | 16.16(3.27) | 60(34.4) | 14.17(4.13) | 121(35.2) | 15.17(3.84) |
| | 16~20점 | 74(43.8) | 16.15(3.00) | 54(30.9) | 15.46(3.88) | 128(37.2) | 15.86(3.40) |
| | 21~25점 | 13(7.7) | 16.18(3.18) | 13(7.4) | 17.31(2.87) | 26(7.6) | 17.77(2.92) |
| F 값 | 2.08 | | 3.12* | | 5.91*** | | |
| 일 상 적 관 계 | 1~5점 | 2(1.2) | 13.50(2.12) | 11(6.3) | 12.27(6.20) | 13(3.8) | 12.46(5.71) |
| | 6~10점 | 13(7.7) | 15.92(3.48) | 47(26.9) | 14.04(5.07) | 60(17.4) | 14.45(4.81) |
| | 11~15점 | 93(55.0) | 15.80(3.27) | 69(39.4) | 14.68(4.02) | 162(47.1) | 15.33(3.64) |
| | 16~20점 | 61(36.1) | 16.90(2.91) | 48(27.4) | 15.56(3.38) | 102(31.9) | 16.31(3.16) |
| | F 값 | 2.01 | | 2.12 | | 5.85** | |
| 경 제 적 관 계 | 1~5점 | 16(9.5) | 16.94(2.84) | 19(10.9) | 13.42(5.04) | 35(10.2) | 15.03(4.49) |
| | 6~10점 | 40(23.7) | 15.63(3.68) | 57(32.6) | 14.61(4.66) | 97(28.2) | 14.03(4.30) |
| | 11~15점 | 70(41.4) | 16.36(3.11) | 64(36.6) | 15.09(4.29) | 134(39.0) | 15.75(3.76) |
| | 16~20점 | 36(21.3) | 15.72(2.85) | 35(20.0) | 14.31(3.62) | 71(20.6) | 15.03(3.30) |
| | 21~25점 | 7(4.1) | 18.29(2.63) | - | - | 7(2.0) | 18.29(2.63) |
| F 값 | 1.56 | | .78 | | 1.70 | | |
| 친 교 적 관 계 | 1~5점 | 3(1.8) | 12.00(1.73) | 4(2.3) | 10.00(3.74) | 7(2.0) | 1.71(3.55) |
| | 6~10점 | 30(17.8) | 15.10(3.75) | 48(27.4) | 14.46(4.49) | 78(22.7) | 14.71(4.21) |
| | 11~15점 | 105(62.1) | 16.01(2.97) | 93(53.1) | 14.46(4.51) | 198(57.6) | 15.28(3.84) |
| | 16~20점 | 31(18.3) | 18.03(2.69) | 30(17.1) | 15.87(4.37) | 61(17.7) | 16.97(3.20) |
| | F 값 | 5.65** | | 2.42 | | 6.52** | |
| 전 체 친 족 관 계 | 16~30점 | 5(3.0) | 16.00(3.67) | 20(11.4) | 12.05(5.60) | 25(7.3) | 12.64(5.34) |
| | 31~45점 | 30(17.8) | 16.07(3.03) | 45(25.7) | 14.62(4.44) | 75(21.8) | 15.20(3.98) |
| | 46~60점 | 76(45.0) | 15.92(3.31) | 66(37.7) | 14.71(4.34) | 142(41.3) | 15.36(3.86) |
| | 61~75점 | 51(30.2) | 16.51(3.04) | 43(24.6) | 15.51(3.31) | 94(27.3) | 16.05(3.19) |
| | 76~90점 | 7(4.1) | 18.80(3.11) | 1(.6) | 18.00(-) | 8(2.3) | 18.00(2.88) |
| F 값 | 1.02 | | 2.41 | | 4.92** | | |

* p < .05, ** p < .01, *** p < .001

4.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부부 특성, 친족관계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해 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한 독립 변인들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t-test 또는 분산분석을 통하여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것으로 검증된 일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전반적인 부부 특성 및 친족관계 변인들을 사용하였다. 중다회귀분석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전반적인 부부특성은 모든 모형에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였으며, 추가로 투입된 행위대상별/영역별 친족관계 밀접도에 따라 모형1에서 모형8까지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형1-친부모와의 정서적 관계, 모형2-친부모와의 일상적 관계, 모형3-친부모와의 경제적 관계, 모형4-친부모와의 친교적 관계, 모형5-배우자부모와의 정서적 관계, 모형6-배우자부모와의 일상적 관계, 모형7-배우자부모와의 경제적 관계, 모형8-배우자부모와의 친교적 관계 밀접도가 투입되었다.

독립 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공차한계가 모두 .10이상, VIF(분산팽창요인)가 5.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²⁾. 분석에 사용된 회귀식의 설명력 R²는 모형에 따라 31%에서 45% 범위 안에 있다.

<표 30>에 제시된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직업과 부부특성의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족관계 영역의 경우 모형4에서 친부모와의 친교적 관계 밀접도만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여성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본인의 건강 상태와 부부특성의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위대상별/영역별 친족관계 밀접도는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조사대상자를 기준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인 건강 상태와 부부특성의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8에서 배우자부모와의 친교적 관계 밀접도만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부부특성은 남녀 모두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

2) 공차한계가 .10이하, VIF(분산팽창요인)이 10 이상일 때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수 있음

력한 변인으로 작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도 높아진다. 또한, 남성의 경우 부부특성 이외에도 직업이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조혜선(2003)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직업만족은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직업은 결혼만족도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본인의 건강 상태는 건강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친족관계영역은 친부모와의 친교적 관계 밀접도만이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친족과의 관계는 오늘날 결혼 지속 년 수 10년 이하에 해당하는 젊은 기혼남녀들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0>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N=344)

| 독립 변인 (준거집단) | 모형1 | | 모형2 | | 모형3 | | 모형4 | | 모형5 | | 모형6 | | 모형7 | | 모형8 | |
|--------------------|----------|--------|----------|--------|----------|--------|----------|--------|----------|--------|----------|--------|----------|--------|----------|--------|
| | (친)정서적관계 | | (친)일상적관계 | | (친)경제적관계 | | (친)친교적관계 | | (배)정서적관계 | | (배)일상적관계 | | (배)경제적관계 | | (배)친교적관계 | |
| | β | β* | β | β* | β | β* | β | β* | β | β* | β | β* | β | β* | β | β* |
| 본인 연령 | -.08 | -.13 | -.09 | -.24 | -.08 | -.12 | -.10 | -.15 | -.08 | -.12 | -.07 | -.10 | -.08 | -.12 | -.05 | -.07 |
| 배우자 연령 | .02 | .02 | .03 | -1.13 | .01 | .01 | .04 | .06 | .01 | .02 | -.001 | -.003 | .01 | .02 | -.01 | -.01 |
| 교육 전문대졸 | .30 | .03 | .18 | .35 | .24 | .03 | -.05 | -.01 | .25 | .03 | .12 | .01 | .25 | .03 | -.15 | -.02 |
| 수준 대학교졸 | .75 | .12 | .74 | .21 | .70 | .11 | .59 | .09 | .75 | .12 | .73 | .11 | .75 | .12 | .39 | .06 |
| (고졸 이하) 대학원졸 | 1.25 | .14 | .14 | .11 | 1.18 | .13 | 1.21 | .13 | 1.23 | .14 | 1.27 | .14 | 1.23 | .14 | 1.01 | .11 |
| 직업 사무관리직 | 2.71 | .36* | 2.67 | .35* | 2.75 | .36* | 2.65 | .35* | 2.72 | .36* | 2.56 | .34* | 2.72 | .36* | 2.70 | .36* |
| (전업 생산기술서비스직 | 2.72 | .31* | 2.81 | .32* | 2.81 | .32* | 2.77 | .31* | 2.78 | .32* | 2.71 | .31* | 2.78 | .32* | 2.88 | .33* |
| 주부) 교육직 외 | 4.33 | .23* | 4.24 | .23* | 4.41 | .24** | 3.84 | .21* | 4.37 | .23* | 4.16 | .22* | 4.37 | .23* | 4.31 | .23* |
| 본인 건강 상태 | -.31 | -.04 | -.28 | -.04 | -.30 | -.04 | -.38 | -.05 | -.30 | -.04 | -.34 | -.05 | -.30 | -.04 | -.42 | -.06 |
| 배우자 건강 상태 | .27 | .04 | .22 | .04 | .26 | .04 | .25 | .04 | .25 | .04 | .21 | .03 | .25 | .04 | .24 | .04 |
| 친부모의경제적수준 | -.14 | -.03 | -.14 | -.03 | -.09 | -.02 | -.14 | -.03 | -.11 | -.02 | -.10 | -.02 | -.11 | -.02 | -.04 | -.01 |
| 결혼 지속 년 수 | .40 | .08 | .48 | .10 | .30 | .06 | .49 | .10 | .34 | .07 | .43 | .09 | .34 | .07 | .36 | .07 |
| 자녀 유무 | .12 | .02 | -.07 | -.01 | .19 | .03 | -.05 | -.01 | .14 | .02 | .02 | .003 | .14 | .02 | .11 | .02 |
| 부부 특성 | .33 | .49*** | .32 | .49*** | .33 | .50*** | .33 | .50*** | .33 | .50*** | .33 | .49*** | .33 | .50*** | .32 | .48*** |
| 모형별 친족관계 | .04 | .06 | .15 | .12 | -.04 | -.69 | .23 | .19** | .00 | -.001 | .09 | .08 | .00 | -.001 | .16 | .15 |
| 상수 | .646 | | -.850 | | 1.940 | | -1.775 | | 1.167 | | .656 | | 1.175 | | -1.176 | |
| R ² | .313 | | .323 | | .313 | | .344 | | .311 | | .317 | | .311 | | .328 | |
| Adj-R ² | .246 | | .256 | | .246 | | .280 | | .244 | | .250 | | .244 | | .262 | |
| F 값 | 4.655*** | | 4.859*** | | 4.653*** | | 5.355*** | | 4.607*** | | 4.726*** | | 4.607*** | | 4.986*** | |

* p < .05, ** p < .01, *** p < .001

성별에 따른 사례수 : 남성=169명, 여성=175명, 전체=344명

<표 30> 계속

(N=344)

| 구 분 | 독립 변인 (준거 집단) | 모형1 | | 모형2 | | 모형3 | | 모형4 | | 모형5 | | 모형6 | | 모형7 | | 모형8 | |
|--------------------|------------------------|----------|-----------|----------|-----------|----------|-----------|----------|-----------|----------|-----------|----------|-----------|----------|-----------|----------|--------|
| | | (친)정서적관계 | | (친)일상적관계 | | (친)경제적관계 | | (친)친교적관계 | | (배)정서적관계 | | (배)일상적관계 | | (배)경제적관계 | | (배)친교적관계 | |
| | | β | β* | β | β* | β | β* | β | β* | β | β* | β | β* | β | β* | β | β* |
| 여 성 | 본인 연령 | .01 | .01 | .01 | .01 | .02 | .02 | .01 | .01 | .01 | .01 | .01 | .01 | .02 | .02 | .01 | .01 |
| | 배우자 연령 | .02 | .02 | .02 | .03 | .04 | .04 | .04 | .04 | .04 | .04 | .03 | .03 | .03 | .03 | .04 | .03 |
| | 교육 전문대졸 | 1.42 | .15 | 1.40 | .14 | 1.50 | .15 | 1.43 | .15 | 1.38 | .14 | 1.40 | .14 | 1.44 | .15 | 1.36 | .14 |
| | 수준 대학교졸 | .23 | .03 | .23 | .03 | .24 | .03 | .28 | .03 | .25 | .03 | .24 | .03 | .26 | .03 | .18 | .02 |
| | (고졸 이하) 대학원졸 | .56 | .04 | .54 | .04 | .53 | .04 | .57 | .04 | .50 | .03 | .56 | .04 | .58 | .04 | .39 | .03 |
| | 직업 사무관리직 | -.85 | -.10 | -.86 | -.10 | -.81 | -.10 | -.91 | -.10 | 1.38 | -.09 | -.81 | -.10 | -.82 | -.09 | -.75 | -.09 |
| | (전업 생산기술서비스직 주부) 교육직 외 | -1.00 | -.06 | -.98 | -.06 | -.92 | -.06 | -1.03 | -.06 | -1.06 | -.07 | -1.03 | -.06 | -.98 | -.06 | -1.01 | -.06 |
| | 본인 건강 상태 | 1.20 | .17* | 1.20 | .17* | 1.12 | .16* | 1.19 | .17* | 1.17 | .17* | 1.20 | .17* | 1.20 | .17* | 1.23 | .17* |
| | 배우자 건강 상태 | .59 | .07 | .58 | .07 | .61 | .07 | .55 | .06 | .50 | .06 | .53 | .06 | .52 | .06 | .49 | .06 |
| | 친부모의경제적수준 | .22 | .04 | .21 | .04 | .17 | .03 | .19 | .03 | .16 | .03 | .20 | .04 | .21 | .04 | .19 | .04 |
| | 결혼 지속 년 수 | -.48 | -.07 | -.47 | -.07 | -.42 | -.06 | -.51 | -.07 | -.39 | -.05 | -.44 | -.06 | -.43 | -.06 | -.52 | -.07 |
| | 자녀 유무 | -.61 | -.07 | -.63 | -.07 | -.79 | -.09 | -.68 | -.08 | -.67 | -.07 | -.67 | -.08 | -.70 | -.08 | -.65 | -.07 |
| | 부부특성 | .45 | .58*** | .45 | .58*** | .45 | .58*** | .44 | .58*** | .43 | .56*** | .44 | .57*** | .45 | .58*** | .44 | .57*** |
| | 모형별 친족관계 | -.02 | -.01 | .01 | -.01 | .11 | .10 | .16 | .10 | .09 | .10 | .05 | .05 | .05 | .04 | .12 | .10 |
| | 상수 | -8.632* | | -8.966* | | -10.873* | | -10.430* | | -9.469* | | -9.258* | | -9.571* | | -10.064* | |
| | R ² | .437 | | .437 | | .447 | | .446 | | .445 | | .439 | | .439 | | .444 | |
| Adj-R ² | .384 | | .384 | | .395 | | .394 | | .393 | | .386 | | .386 | | .392 | | |
| F 값 | 8.235*** | | 8.231*** | | 8.565*** | | 8.532*** | | 8.514*** | | 8.306*** | | 8.287*** | | 8.480*** | | |
| 전 체 | 본인 연령 | .08 | .10 | .08 | .10 | .09 | .10 | .08 | .08 | .07 | .09 | .07 | .09 | .09 | .10 | .08 | .10 |
| | 배우자 연령 | -.10 | -.12 | -.09 | -.11 | -.09 | -.11 | -.08 | -.09 | -.09 | -.19 | -.09 | -.10 | -.09 | -.11 | -.09 | -.11 |
| | 교육 전문대졸 | .94 | .10 | .87 | .09 | .98 | .10 | .87 | .09 | .91 | .10 | .86 | .09 | .94 | .10 | .78 | .08 |
| | 수준 대학교졸 | .70 | .09 | .66 | .08 | .74 | .09 | .67 | .09 | .70 | .09 | .64 | .08 | .70 | .09 | .51 | .07 |
| | (고졸 이하) 대학원졸 | 1.12 | .09 | 1.13 | .09 | 1.14 | .10 | 1.16 | .10 | 1.13 | .09 | 1.11 | .09 | 1.14 | .09 | .94 | .08 |
| | 직업 사무관리직 | .55 | .07 | .53 | .07 | .53 | .07 | .49 | .06 | .53 | .07 | .44 | .06 | .54 | .07 | .60 | .07 |
| | (전업 생산기술서비스직 주부) 교육직 외 | 1.55 | .08 | 1.57 | .08 | 1.55 | .08 | 1.30 | .07 | 1.39 | .07 | 1.33 | .07 | 1.48 | .08 | 1.36 | .07 |
| | 본인 건강 상태 | .93 | .13* | .91 | .13* | .90 | .13* | .91 | .13* | .88 | .12* | .90 | .13* | .91 | .13* | .93 | .13* |
| | 배우자 건강 상태 | .25 | .03 | .25 | .03 | .26 | .04 | .23 | .03 | .24 | .03 | .18 | .02 | .24 | .03 | .20 | .03 |
| | 친부모의경제적수준 | -.03 | -.01 | -.01 | -.002 | -.05 | -.01 | -.05 | -.01 | -.05 | -.01 | -.01 | -.003 | -.01 | -.001 | .001 | .00 |
| | 결혼 지속 년 수 | .09 | .02 | .12 | .02 | .12 | .02 | .11 | .02 | .17 | .03 | .16 | .03 | .11 | .02 | .06 | .01 |
| | 자녀 유무 | -.19 | -.02 | -.30 | -.04 | -.27 | -.03 | -.28 | -.04 | -.22 | -.03 | -.31 | -.04 | -.23 | -.03 | -.21 | -.03 |
| | 부부특성 | .37 | .50*** | .36 | .48*** | .37 | .50*** | .36 | .49*** | .35 | .48*** | .36 | .49*** | .37 | .50*** | .36 | .48*** |
| | 모형별 친족관계 | .02 | .02 | .09 | .06 | .06 | .06 | .18 | .13** | .08 | .10* | .11 | .11* | .05 | .05 | .15 | .12* |
| | 상수 | -3.589 | | -4.521 | | -4.584 | | -5.498* | | -3.903 | | -4.329 | | -4.145 | | -4.872 | |
| | R ² | .335 | | .338 | | .339 | | .349 | | .344 | | .345 | | .337 | | .347 | |
| Adj-R ² | .305 | | .308 | | .308 | | .320 | | .314 | | .315 | | .307 | | .317 | | |
| F 값 | 11.016*** | | 11.187*** | | 11.195*** | | 11.744*** | | 11.453*** | | 11.533*** | | 11.125*** | | 11.618*** | | |

* p < .05, ** p < .01, *** p < .001

성별에 따른 사례수 : 남성=169명, 여성=175명, 전체=344명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혼 지속 년 수 10년 이하인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친족관계 밀접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동시에 사회인구학적 특성, 부부 특성, 양가 부모에 대한 친족관계 밀접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와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기혼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56부를 제외한 34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 중 여성은 175명, 남성은 169명으로 그 수가 비슷하였으며, 연령은 30대가 약 70%를 차지하였다. 이들의 교육 수준은 전문대졸 이상이 85% 이상으로 비교적 높았으며, 이들 중 50%이상이 사무직에 종사하였다. 출생순위는 대체로 장남 또는 장녀, 차남 이하 또는 차녀 이하로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은 본인 월평균소득 239.8만원, 월평균가계수입은 301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69.2%, 501만원 이상인 경우도 21.2%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이들의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결혼 지속 년 수가 1년 1개월~5년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으며, 이들 중 64.8%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가족원과의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은 6.1%(21명)로 친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과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친부모 또는 배우자 부모와의 거주지 근접성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가 양쪽 모두 30% 이상을 차지하였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친부모와 배우자 부모의 경제적 수준 모두 '중'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사용된 독립 변인들은 첫째,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직업, 본인 월평균소득, 월평균가계수입, 출생순위, 건강 상태, 결혼 지속 년 수, 자녀 유무, 양가 부모와의 근접성, 양가 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포함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둘째, 의사소통, 성역할태도, 성만족도,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부부 특성과 셋째, 정서적 관계, 일상적 관계, 경제적 관계, 친교적 관계를 포함한 친족관계이다. 종속변인은 연구 문제에 따라 친족관계 밀접도 또는 결혼만족도를 적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른 친족관계 밀접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들에서 배우자의 부모에 비해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자들의 친족관계가 전반적으로 친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부계제를 벗어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에 따라 친정지향성을 보인다고 한 선행 연구 결과(이동원, 1984; 이상원, 1992)와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한편, 친족관계와 관련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중 성별, 월평균소득, 출생 순위, 결혼 지속 년 수, 양가 부모와의 근접성, 양가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친족관계 밀접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성별, 결혼 지속 년 수, 배우자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보다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에 비해 남성의 배우자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남성의 결혼 지속 년 수는 짧을수록 양가 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친족관계 밀접도는 결혼 지속 년 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성은 결혼 기간과 상관없이 친족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부모와의 상호 교류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친족관계 밀접도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배우자 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친족관계 밀접도에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박시라(1999)는 자녀양육기의 기혼남녀의 친족 유대에 관한 연구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부계중심적인 사회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친족관계도 편의와 실리를 중시하는 교환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직업, 건강 상태, 결혼 지속 년 수, 자녀 유무, 친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 결과들과 대체로 일치하였다(박태운, 1982; 이미숙, 1997; 현경자, 2005; 손연정·유문숙, 2008). 이들 독립 변인들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이견 없이 높았다. 또한 본인 연령은 남녀 모두에게서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배우자의 연령은 남성에게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남성의 경우 직업에 따라 결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인이 교육직에 종사하는 경우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고, 배우자가 관리·전문직, 전업주부일 때 결혼만족도가 대체로 높았다. 여성의 결혼만족도는 직업보다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결혼만족도도 높았다. 또한,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자녀가 있을 때보다 자녀가 없는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녀양육의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있으므로 자녀는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부부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에 관한 분석 결과 의사소통, 성만족도, 4개 영역을 모두 포함한 전반적인 부부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특히 의사소통과 성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선행 연구들(박태영, 1998; 현경자, 2005; 임유진 외, 2008)에 따르면 의사소통이 결혼 만족에 강력한 영향 요인이며, 부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결혼만족도에 매우 중요하다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선행 연구들(홍성목, 1999; 이선미·전귀연, 2001; 고정애, 2004; 이경옥·김영희, 2004)은 성만족도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성역할태도는 여성의 경우에만 유의하였는데, 이는 남성과는 달리 여성은 결혼생활에 대해 공평하다고 인지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조정문, 1999)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여성은 자신이 이익을 본다고 생각할 때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여성은 공평하다고 인식할 때 높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한, 이미숙(2000)은 부인의 취업상태에 따른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에서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일치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성역할태도는 결혼생활의 공평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어떠한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부부 특성 변인들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대개 결혼만족도와의 관련성에 관한 독립된 연구 주제로 많이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각 영역을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했으나, 각 영역별 특성에 맞게 보다 간결하고 단순·명료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포괄적으로 결혼만족도와

의 관계를 밝히고자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넷째, 친족관계 밀접도와 결혼만족도는 본 연구에서 가장 심도 있게 다루고자 했던 연구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 친족관계 밀접도는 양가 부모와의 관계에 한정하였으며, 양가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 일상적 관계, 경제적 관계, 친교적 관계의 정도를 각각 점수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서,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남성의 경우 친교적 관계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정서적 관계, 일상적 관계, 전반적인 친족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남성의 경우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일상적 도움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조사 참여나 가족모임과 같은 친교적 관계에 치중하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여성의 경우 가정-일을 양립해야 하는 현실에서 보다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일상적 도움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배우자 부모와의 친족관계 밀접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남성의 경우 친교적 관계가 상당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정서적 관계만이 다소 유의하였다.

그러나, 친부모와 배우자부모와의 경제적 관계 밀접도는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경제적 도움만으로 결혼만족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결혼만족도는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경제적 풍요가 반드시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으로 전체 조사대상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결혼만족도는 경제적 관계를 제외한 모든 친족관계 밀접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지지하는 '친·인척 관계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될 수 있으며, 가족 및 친척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 상관관계가 높고 가족관계와 친·인척 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것이다.

다섯째, 독립 변인들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독립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은 남성의 경우 직업, 부부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모형에서 친부모와의 친교적 관계 밀접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의 경우는 본인의 건강 상태와 부부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모형에서 배우자부모와의 친교적 관계 밀접도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족관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였으며, 의사소통과 성만족도와 같은 부부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선택한 결혼이 어떻게 하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더욱이 결혼 만족을 논의하는 데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친인척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규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결혼 초기 부부는 친족으로 인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들은 결혼 만족은 물론 삶의 만족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오늘날 20-30대 젊은 기혼남녀의 친족관계 밀접도는 대체로 친부모와의 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에 비해 남성의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보다 활발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점차 부부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남성은 여성만큼 사회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전통적인 남성중심적 문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배우자 부모와의 친족관계에서도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친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남녀간 별 차이가 없으나 시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여성의 비율(47.9%)보다 처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56.7%)이 높게 나타난 조사 결과(통계청 「사회조사」, 2008)를 보더라도, 실제로 여성의 경우 가정의 주체로서 남성에 비해 배우자부모와의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친족관계 밀접도가 결혼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친족관계 밀접도는 성별, 연령, 직업, 건강 상태, 부모의 경제적 수준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의사소통, 성만족도 등과 같은 부부 특성에 비해 그 영향이 크지 않았다. 즉, 친족관계가 결혼 10년 이하의 20-30대 젊은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미미한 반면, 부부 특성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부 관계가

점차 부부 중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인의 결혼만족도는 기혼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배우자나 가족, 자녀 등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는 입장(현경자, 2002)을 지지하며, 친인척과의 갈등은 특히 여성들에게 중요한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여(이선미·진귀연, 2001) 결혼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사회조사」(2008)에서 배우자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으며, 이에 따라 배우자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도 여성이 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가족중심성이 강한 한국사회 내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결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친·인척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 및 결론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제안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표집된 대상의 대부분은 교육 수준, 직업, 소득 수준 등이 중간 이상의 사회계층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이 이러한 변인들을 친족관계 내지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친족관계의 행위 대상을 양가 부모로 한정하면서 친족관계 밀접도와 결혼만족도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오늘날 소자녀 현상이 심화되면서 형제자매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고 친족관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오늘날 친족관계가 양계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으며, 친족관계가 친가중심적인 성향을 나타낸다는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부모-자녀 간에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친족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오늘날 변화하는 친족관계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따른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기연(1995). 주부의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 공동참여와 가정생활만족도 : 대구시 거주 30~40대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5), 35-46.
- 강성희(1996). 도시 기혼 남녀의 사회적 관계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정애·박경(2004). 기혼여성의 성 만족 및 일반적 의사소통과 성 관련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심리치료, 제3권 제2호, 75-91.
- 김경원(1989). 친족관계망 유대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자(1977). 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자(1985). 가족관계에 대한 부부의 가치의식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24집, 139-166.
- 김미령(2009). 연령에 따른 여성의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제26호, 35-62.
- 김미숙(1989). 도시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그 관련 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녀·채규만(2006). 가족 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655-671.
- 김성희(1992). 도시 핵가족 주부의 친족관계에 관한 연구 : 대구시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2000).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김순옥(2001). 결혼 초기부부의 친족행동 및 배우자의 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2), 91-111.
- 김순옥·김수진(2002). 결혼 초기 친족행동 대상 및 정도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생활과학연구논집, 제5호, 195-214.
- 김요완(2000).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과 성 지식 수준의 성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창(1992). 결혼 초기 부부의 역할갈등 및 갈등해결방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주희(1983). 한국저통사회에 있어서의 2차집단의 성격 : 그 연속 및 변화. 한국문화인류학회지, 제15집.

김주희(2009). 결혼 초기 여성의 친족관계 : 외동딸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학회지, 가족과 문화 21(4), 95-118.

김주희·오명희(1998). 친족관계망 밀집도에 따른 부부역할 구조에 관한 연구: 도시핵가족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생활문화연구논집, 제12집, 129-149.

김향련·고재홍(2007).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와 결혼 만족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21(2), 89-105.

김혜경(1987). 결혼 초기 부부의 갈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화자·윤종희(1991). 가족 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 만족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55-170.

나은영·김혜숙(1997). 한국의 가족 및 혈연 공동생활과 삶의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3(1), 1-17.

박경희(2001). 결혼 초기 전업주부의 부부관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남숙(2001). 부부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민자(2006). 행복가족의 요소와 의미, 가족관계학회지, 가족과 문화, 18(4), 183-205.

박숙경(1996). 부부간의 의사결정 및 역할수행구조와 결혼적응.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시라(1999). 자녀양육기 기혼남성의 친족유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태온(1983).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 도시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139-150.

손연장·유문숙(2008). 기혼 직장여성의 결혼만족도 관련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2(2), 143-154.

송말희(1990). 기혼 남녀의 부부간 갈등정도와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31-37.

오경희(1997). 의사소통양식, 의사소통 및 결혼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01-220.

오명희(1997). 친족관계망 밀집도에 따른 부부역할 구조에 관한 연구 : 도시 핵가족을 중심으로. 성신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시순(2003). 기혼 노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유영주(1986). 결혼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은희(1975). 한국 도시부인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현숙(2004). 부부교사의 자원과 의사결정권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강호(2006). 가족생활주기별 결혼만족도에 영향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옥·김영희(2004). 기혼여성의 성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1(7), 39-58.

이경희(1988). 가족 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광자(1988). 우리나라 친족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 도시 중산층 핵가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동원(1984). 도시주부의 관계망에 대한 조사(1)-시가 및 친가와외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원논총, 44, 7-36.

이미숙(1985). 자녀의 성, 연령, 수와 주부의 성역할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151-170

이미숙(1990). 한국에서의 결혼 만족 연구에 대한 고찰 및 평가 : 1968~1990. 성신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제10집, 27-71.

이미숙(1997).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 요인 연구 : 가족주의가치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17(1), 87-105.

이미숙(2000). 부인의 취업상태에 따른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부인의 가정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145 ~ 161.

이상원(1992). 결혼 초기 부부의 부모와의 유대 및 결혼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선미·전귀연(2001). 결혼 초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과 대처방식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03-220.

이신영(1984). 결혼 초기의 부부갈등에 관한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옥진(1982).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가족환경변인에 관한 일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원주(1988). 서울시 기혼 남녀의 친족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우·강기연(2001).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 인지, 의사결정 참여도 및 가정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제 39(9), 137-152.

이정은(1999).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효재(1971). 도시인의 친족관계. 한국연구원.

임유진외 2인 (2008). 원가족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심 지각과 신혼기 결혼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43 ~ 154.

전미경(1993). 도시 저소득층 부인의 친족관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재기 외(2005). 친족간 접촉의 변이와 결정요인 : 한미일 비교연구. 삼성경제연구소, 257-264.

정지숙(1994). 부부의 성역할태도, 의사결정 및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진현(1993). 한국도시주민의 친족관계와 친족의식 :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현숙·유계숙(2001). 가족연구의 발달적 접근. 가족관계학(편). 가족이론. 서울: 교문사.

조유리(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은영(2003). 기혼 남녀의 결혼의 질과 안정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정문(1995). 결혼 생활의 공평성 인지와 결혼 만족. 한국사회학 제29호, 559-584.

조정문(1997). 한국사회 친족관계의 양계화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13(1), 87-113.

조혜선(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 : 경제적 자원, 성 역할관, 관계성 모델의 비교. 한국사회학 37(1), 91-116.

최규련(1984).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최규련(1987). 한국 도시 부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유경(2002). 결혼 초기 부부의 스트레스 인지와 대처방안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재석(1982). 현대가족연구사. 일지사.

한경혜·장미나(1993). 농가주부의 의사결정 참여, 역할 부담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학회지(21), 45-56.

한남제(1988). 도시주민의 친족관계. 한국사회학, 22(여름), 35-39.

한주리·허경호(2004). 아내와 남편의 의사소통 능력, 논쟁성향 및 성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방송학회, 18(4), 148-190.

현경자·김연수(2002). 기혼 남녀의 결혼 만족 이유에 대한 내용분석-결혼 만족 근원의 유사점과 차이점. 한국사회복지학회, 제49(5), 225 ~ 263.

현경자(2005). 결혼의 질과 안정을 저해하는 부부갈등 영역.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1(12), 158-193.

홍성목(1999). 아름다운 사랑과 성. 학지사.

문화일보(2008). 2008.06.26

아이비타임즈(2009). 2009.11.06

위클리경향(2010). 874호. 2010.5.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친·인척 돌봄'의 비율 자료.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10). <http://lashome.or.kr/> 2009년도 이혼상담통계자료

통계청 혼인·이혼자료(2009). <http://kosis.kr/nsportal/> 2009년도 이혼통계.

통계청 사회조사 부부관련 자료(2010). <http://kosis.kr/nsportal/> 2008~2009년도 사회조사 등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부부의 자화상.

ABSTRACTS

A Study on Solidity of Kinship Ties and Marital Satisfaction

Yoon, Hee Jin
Dept. of Family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

This study examines two important elements of a person's life satisfaction, namely, marital satisfaction and kin relationship. Subjects of the research were men and women married for up to 10 years, a period which includes the beginning stages of a marriage in which kin relations are most actively played out and the child-rearing years in which a large amount of everyday help is required.

A wide range of independent variables were used for the research. Socio-demographic traits included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profession, individual average monthly income, average monthly family income, order of birth among siblings, health status, duration of marriage, presence of children, proximity to parents on either side, and the economic status of parents on either side. Spouse

traits included communication, gender role attitude, sexual satisfaction and decision-making rights. And kin relationships including emotional, everyday, economic and sociable relationships were used for the research as well. Results of the research based on these independent variables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solidity of kinship tie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traits,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relation to gender, order of birth among siblings, proximity to parents on either side and the economic status of parents on either side. Of these, the order of birth among siblings had significance only in men, and proximity to one's own parents had more significance than that of one's parents-in-law in all the subjects. Also, the solidity of kinship ties according to the economic status of one's own parents was found to have significance in men, while the solidity of kinship ties according to the economic status of one's parents-in-law was found to have a considerable amount of significance in general.

Second, regarding mari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traits,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profession, health status, duration of marriage, presence of children and the economic status of one's own parents were found to yield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To be more specific, men were found to have better marital satisfaction than women, with their own age and that of their spouse being highly significant, while in women, only their own age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t was also found that in all the subjects, the higher their own level of education, the higher the marital satisfaction. One's profession and the economic status of one's own parents was significant only in men's marital satisfaction, and health status, duration of marriage and the presence

of children were found to yield significant differences in women's marital satisfaction.

Third, an analysis of mari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spouse traits showed that communication, sexual satisfaction and spouse characteristics in general led to significant differences. But gender role attitude was found to have significance only in women and decision-making rights were found to have no significance in either men or women. Also, in all of the categories, men's marital satisfaction was found to be higher than women's, and there was a tendency of higher spouse relationship satisfaction leading to higher marital satisfaction regardless of gender.

Fourth, in the case of mari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kinship ties with one's own parents, only sociable relationship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men, while emotional, everyday and overall kin relationship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women. As for mari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kinship ties with one's parents-in-law, sociable relationships were found to be considerably significant in men, while only emotional relationships were somewhat significant in women. But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rital satisfaction were not found in either men or women with regard to the economic relationship with one's own parents or parents-in-law.

Fifth,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e relative influence of independent variables on marital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profession and spouse characteristics were relevant in men, and in some models, their sociable relationship with their own parents. But in the case of women, it was their health status and spouse characteristics that were found to be relevant, and in some models, their sociable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in-law. Nevertheless,

kin relations were found to have minimal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spouse traits such as communication and sexual satisfaction were found to have the biggest influence.

In sum, after examining the kinship ties of today's young married couples in their 20s and 30s, it can be said that they generally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ir own parents, with men maintaining a more solid kin relationship with their own parents than women. This shows that even though Korean society is advancing toward equality between spouses, men are not adapting to this change as well as women, causing a particular delay within the family.

Another tendency observed in this research is that the relative influence of closeness to one's parents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couples in their 20s and 30s is minimal, while spouse characteristics have a great amount of influence, which shows that relationships between spouses are increasingly becoming centered on themselves. Nevertheless, since significant differences have been found in mari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kinship ties, it would be necessary to continue paying close attention to family relations which affect the overall marital life in one form or another, particularly in Korean society where family-centeredness is predominant.

| | | |
|---------|--|--|
| 조 사 번 호 | | |
| | | |

설 문 지

설문 대상 : 결혼 10년 이하의 기혼 남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결혼 10년 이하인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친족관계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질문에 대하여 귀하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바를 한 문항도 빠짐 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부 모두 설문에 응하시는 경우 부부가 함께 의논하지 마시고 각자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집된 자료는 비밀 보장을 위해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통계 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0 0 9 년 4 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윤 희 진 (H.P. 010-9770-0106)

e-mail : only-blueseas@hanmail.net

※ 다음은 친족관계 밀접도를 알아보기 위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별로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친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양쪽 모두 V표를 해 주십시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그렇다 5. 항상 그렇다

| 문 항 (18) | 친 부모 | | | | | 배우자의 부모 | | | | |
|----------|------|---|---|---|---|---------|---|---|---|---|
|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
| 8 | | | | | | | | | | |
| 9 | | | | | | | | | | |
| 10 | | | | | | | | | | |
| 11 | | | | | | | | | | |
| 12 | | | | | | | | | | |
| 13 | | | | | | | | | | |
| 14 | | | | | | | | | | |
| 15 | | | | | | | | | | |
| 16 | | | | | | | | | | |
| 17 | | | | | | | | | | |
| 18 | | | | | | | | | | |

※ 다음은 부부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해 주십시오.

| 문 항 (12) | 전혀 그렇지 않다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정말 그렇다 |
|--|-----------------|------------------|----------|------------|-----------|
| | 1 | 2 | 3 | 4 | 5 |
| 1. 우리 부부의 대화는 주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다. | | | | | |
| 2. 우리 부부는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의 입장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다. | | | | | |
| 3. 대체로 남편(아내)의 의견이나 생각을 먼저 들어 주고, 존중해 준다. | | | | | |
| 4.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확실히 공감한다. | | | | | |
| 5. 남편에게 있어 아내가 가정살림을 잘 꾸려 나가는 것이 지적 동반자의 역할보다 중요하다. | | | | | |
| 6. 아내가 직장생활을 할 경우 남편은 가사일을 공평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 | | | | |
| 7. 나의 남편(아내)는 성적 취향, 성에 대한 태도가 같다. | | | | | |
| 8. 나는 우리 부부의 성관계 횟수가 평균보다 적다고 생각한다. | | | | | |
| 9. 우리 부부가 불만, 요구, 만족감 등 성생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 | | | | |
| 10. 우리 부부는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항상 함께 상의하여 결정한다. | | | | | |
| 11. 우리 부부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남편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 | | | | | |
| 12. 우리 부부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아내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 | | | | | |

※ 다음은 결혼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해 주십시오.

| 문 항 (4)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거의 만족하지 않는다 |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 가끔 만족한다 | 자주 만족한다 | 거의 대부분 만족한다 | 항상 만족한다 |
|--------------------------|-------------|-------------|--------------|---------|---------|-------------|---------|
| | 1 | 2 | 3 | 4 | 5 | 6 | 7 |
| 1 나는 결혼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 | | | | | | | |
| 2 나는 남편(아내)을 배우자로서 만족한다. | | | | | | | |
| 3 나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 | | | | | | |

※ 다음의 물음에 답해 주세요. (직접 기입 또는 해당 번호 기입)

1. 귀하의 성별은 ? 해당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여성 () 남성 ()

2. 귀하와 배우자가 태어난 해는 몇 년도 입니까?
 본인 ()년 배우자 ()년

3. 귀하와 배우자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번호기입)
 본인 () 배우자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학교졸 ⑤ 대학원졸

4. 귀하와 배우자의 출생순위는? (번호기입) 본인 () 배우자 ()

① 장남 또는 장녀 ② 차남 이하 또는 차녀 이하 ③ 외아들 또는 외동딸

5.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 상태는 어떠합니까? 본인 () 배우자 ()

① 매우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쁜 편이다 ⑤ 매우 나쁘다

6. 귀하 자녀 수와 연령은 몇 세입니까? (단, 자녀가 없는 경우 첫째 자녀란에 ① 번을 꼭 기입하세요)

첫째 자녀 () 둘째 자녀 () 셋째 자녀 () 넷째 자녀 ()

- ① 자녀 없음 ② 만 0~2세 ③ 만 3세 ~ 4세 ④ 만 5세 ~ 6세 ⑤ 만 7세 이상

7. 귀하와 배우자는 어느 직종에 종사하십니까? (번호기입)

본인 () 배우자 ()

- ① 전업주부 ② 사무직(회사원, 은행원, 일반공무원 등) ③ 판매·서비스직 ④ 기술직·생산직
⑤ 경영·관리직(기업체간부, 고위공무원 등) ⑥ 전문직(의사, 변호사, 약사 등) ⑦ 교육직
⑧ 단순노무직(경비원, 일용직노동자, 청소부 등) ⑨ 농림어업 ⑩ 무직
⑪ 기타 ()

8. 귀하와 월평균수입은 얼마입니까? (전업주부 또는 무직일 경우 0으로 기재)

세금 공제전 금액 () 만 원

9. 귀하의 월평균가계수입(이자,연금,생활보조금 등 모두 포함)은 얼마입니까? (번호기입)

()

- ① 100만원 이하 ② 101만원 ~ 150만원 ③ 151만원 ~ 200만원
④ 200만원 ~ 250만원 ⑤ 251만원 ~ 300만원 ⑥ 301만원 ~ 350만원
⑦ 351만원 ~ 400만원 ⑧ 401만원 ~ 450만원 ⑨ 451만원 ~ 500만원
⑩ 501만원 이상

10. 결혼한 해는 몇 년도입니까? ()년도 ()월

11.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시(도) ()구

12. 당신의 친부모와 배우자의 부모는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친부모 () 배우자의 부모 ()

- ① 안 계심 ② 동거 ③ 같은 동네(시(도)/구/동) ④ 같은 시(도)/구에 거주
⑤ 같은 시(도)에 거주 ⑥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에 거주 ⑦ 기타 지역(해외, 수도권 이외)

13. 본인을 제외한 동거 중인 가족구성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배우자 | 자녀 | 친부/친모 또는 모두 | 배우자의 부/모 또는 모두 | 친형제자매 | 배우자의 형제자매 | 기타 가족원 (조부모 등) |
|-----|----|----------------|-------------------|-------|--------------|-------------------|
| | | | | | | |

14. 본인이 생각하는 부모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번호기입)
친부모 () 배우자의 부모 ()

-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이상.

※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